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사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1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2-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7월 1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21세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는 무엇일까. 민족통일 과학화 정보화 …….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하나가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정했다. 딸로서 아내로서 시어머니로서 가족관계상 주어진 역할 외에도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해야할 몫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性)적 차별을 두지않은 인간평등을 가르치신 부처님의 여성관을 새겨본다. 〈편집자주〉

일곱 종류의 아내

세상에는 남존여비의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지않으며 다만 불성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여자는 무엇보다 단정해야 한다. 단정하다는 것은 얼굴이나 몸매나 의복등 겉모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마음을 한결같이 공손하게 가지는 일이다.
〈옥야경〉

질개가 굳은 영리한 아내는 어머니가 되면 자식을 훌륭히 키우기에 족하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큰 인물이 된다.
〈잡아함경〉

세상에는 일곱 종류의 아내가 있다. 첫째 자애로운 어머니같이 지아비를 돌보고 섬기는 어머니같은 아내, 둘째 누이동생이 오라버니를 대하듯 지아비를 공경하는 누이같은 아내, 셋째 사직이고 비밀스런 일을 항상 서로 의논하고 행동이 어긋나고 잘못됨이 없도록 서로 가르쳐서 자혜가 더욱 밝아지도록 하는 친구같은 아내, 넷째 시부모와 남편에게 성의와 존경을 다하고 어진덕을 베풀고 한결같이 조그만 잘못도 없으며 예를 잃지 않는 아내같은 아내, 다섯째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고락을 달게 여겨 두마음을 가지지않고 주인받들듯 남편을 섬기는 종같은 아내, 여섯째 남편에게 항상 분노를 품으며 억지로 사는것같이 남편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림을 돌보지 않는 원수같은 아내, 일곱째 다른남자와 정을 통해 남편을 밤낮 해하기만을 엿보는 살인자같은 아내이다.
〈옥야경〉

여인들은 다섯가지 욕심이 강하다. 호화롭고 귀한 집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부귀한 집에 시집가기를 바라고 남편이 자기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며 자식이 많기를 바라고 집안에서 제 마음대로 하기를 바란다. 비록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은 복이 없으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증일아함경〉

관련기사 2면

해인사 산문폐쇄 불사

15일 가야산 골프장 건설반대 결의대회
월주스님등 지식인 110명 백지화 촉구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해인사가 산문폐쇄도 불사키로 하는 등 각계의 반대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인골프장 건설 저지 해인총림대책위(위원장 성법 해인사주지)는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열어 산문폐쇄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15일 본말사 주지스님을 비롯 1천여명의 사부대중들이 참석하는 '골프장 건설 저지 산중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전국 18개 강원 64개 선원과 연대해 반대운동을 결처나가는 한편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해인강원 학인스님들은 지난 8일부터 골프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하루 4차례 8시간씩 가행(加行)정진기도에 들어갔다.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 훼손도 우려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산림훼손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와 지형·풍향의 변화, 독성농약 분말 침투로 장경각에 보존된 팔만대장경 훼손이 우려된다. 대책위 지산스님은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해인사부근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며 훼손에 대비해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1일 각계 대표 인사 110명은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해인골프장 건설 전면 백지화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일주 조계종총무원장과 이세중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고은 시인, 권숙표 연세대명예교수, 김상현 장을병 이부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문체부의 허가취소 결정을 번복한 6월 19일의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전국민과 후손들을 위한 공공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지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명백한 반환경적 판결"이라고 반박하고 사법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문체부도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곧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대구·경북대책위원회도 매주 1회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캠페인, 대책위 소속단체 입주건물에 현수막부착, 가야개발 대표 김선국씨 소유의 궁전예식장 이용안하기 등 구체적인 반대운동을 결처고 있다. 또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제출 등의 법적 대응과 1백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성은 · 이윤호 기자〉

관련기사 2면



◇월주스님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 110명은 지난 1일 "국립공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파괴되거나 회생될 수 없는 후손들의 유"이라며 사법부와 정부에 대해 해인골프장 건설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13억원 「지장보살도」 최근 미국에서 한국불화 국제경매사상 최고액인 13억여원에 낙찰돼 국내에 반입된 「고려 불화 지장보살도」(규격 가로 58.5, 세로 98.5cm)의 전체 모습. 〈규격기사 13면 · 사진 중앙일보 제공〉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 도영스님

△도영 금산사주지: 금산상고 전라고(2구좌) △보일 운장암주지: 청양여상(1구좌) △조해형 불교방송사장: (3구좌) △윤용숙 한국여성문제연구회회장: 법등종합복지관(20구좌) △주영운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아산지역(5구좌) △차영호: 울산 학성고(1구좌) △황규홍: 울산고 울산중(2구좌) △이명식: 화북중(1구좌) △서통해: 중앙여고(1구좌) △이재철: 성광여고(1구좌) △이상열: 성신고(1구좌)

〈7월4일 현재 총 354구좌 접수〉


◇ 조해형사장


◇ 윤용숙회장


◇ 주영운이사장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지역 학교 · 출신모교 · 자녀의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온라인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바랍니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인상 '혼선'

조계종 관람료위구성…10일 합동징수사찰 주지회의

지난 1일부터 정부의 문화재 관람료 자율화허용 방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찰관람료위원회(위원장 설조)가 전국 57개 관람료사찰의 관람료를 새로 책정했으나 총무원이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관람료 징수에 혼선을 빚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6월28일 관람료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람료인상액을 확정했다. 이날 관람료위원회는 "정부가 10년동안 공원입장료를 해마다 인상한 반면 문화재관람료는 동결시켜왔다"며 최고 3백%에 이르는 대폭 인상을 결의했다.

그러나 문화재 관람료의 대폭인상에 대한 따가운 여론이 일자 법주사 은해사를 비롯 10개 사찰이 1일부터 인상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나머지 사찰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총무원은 긴급히 7월10일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사찰주지회의를 소집하고 관람료징수와 요율자율화에 대해 논의키로 하는등 관람료 요율재검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관람료위원회 위원장 설조스님은 "관람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시행하지도 않고 재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일축했다.

한편 관람료인상에따라 △안내원 고정배치 △사찰 소개 영상물 상영 △안내판 정비 등 사찰 참배객을 위한 서비스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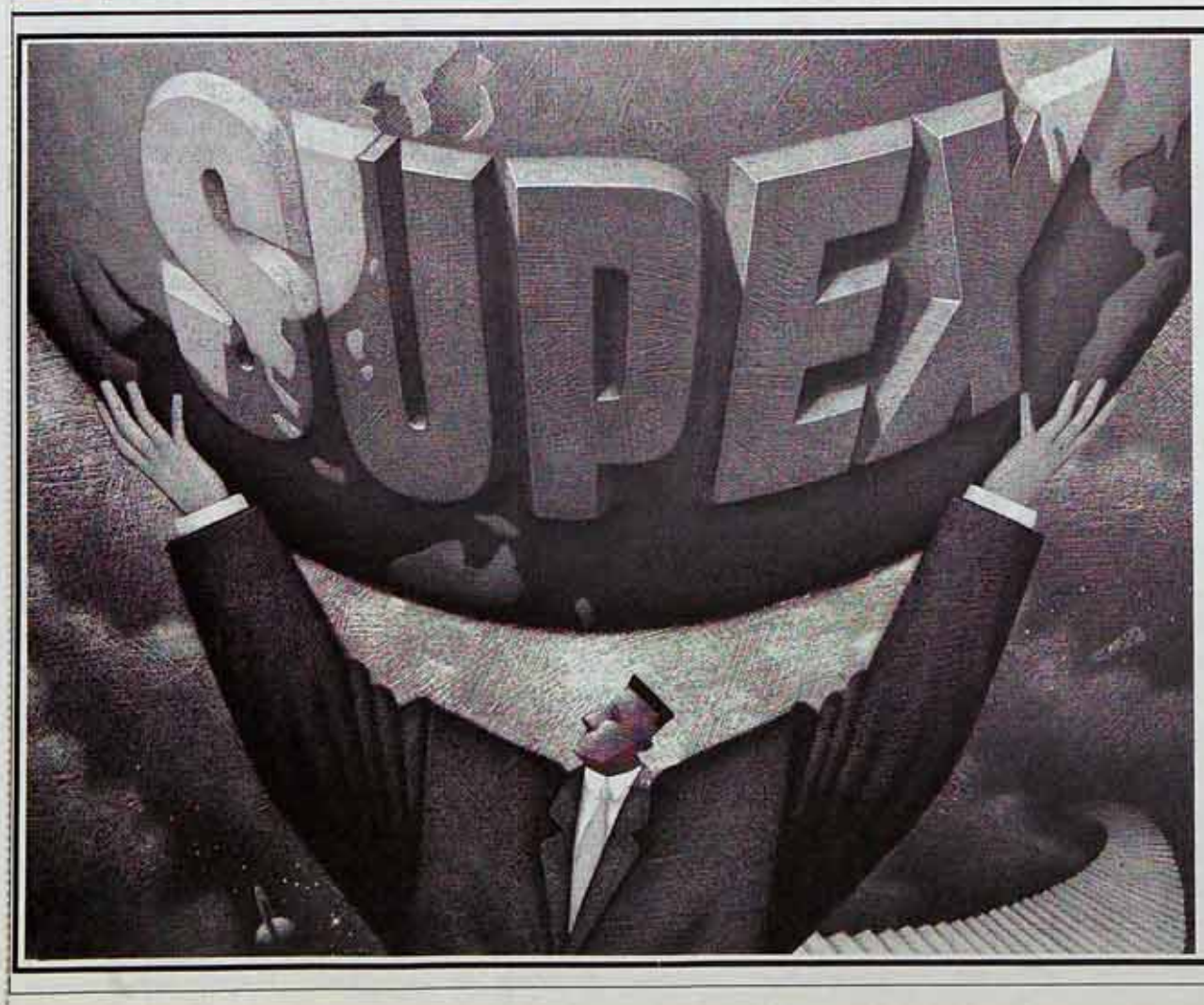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 국토순례단은 지난 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족적 양심과 신앙적 결단에 따라 국민들에게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환기시키고 남북합의서 이행촉구를 위해 남녘을 순례했다"고 밝히고 남북합의서 이행촉구 종교인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국토순례 당시 뜻을 같이 한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남북합의 이행촉구
종교인협 국토순례단

별지부록 타블로이드 4면 발행
특별정담 — '문화월드컵' 이렇게 열자 3면
'불교정화사' 정리된다 15면
불교비디오 시청각 교재로 각광 13면
기획연재 — 경주남산 재조명 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SUPEX
SUPER EXCELLENT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사 설

월드컵과 불교문화

2002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열게 되었다.

선발주자인 일본과의 경합이 막바지에 이를 때쯤 잠 못들고 뒤척인 사람이 많았다. 특히 나이든 사람들이 그랬다. 또 한편, 젊은 지식층들은 전국민적 스포츠 열풍이 사회 정치적으로 산적한 문제를 호도하며 국민을 선동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일제치하를 겪고 열패감과 울분을 달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번의 쾌거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적 대전을 치르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뿌듯이 안겨주었고, 또 젊은 식자층등의 우려는 뒤집어보면, 전후세대가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냉정하게 다룰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경제적 문화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월드컵 유치는 순전히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역량과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시험하는 마당이다.

그러자면 개최에 흥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성장한 경제력에 어울리는 문화적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이어진 근대화와 개발드라이브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반면, 귀중한 문화와 전통의 유산을 돌이킬 수 없이 피폐시켰다.

문화는 이제 보존의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우리 모두 문화라는 것이 보존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재건되어야 할 대상임을 자각해야 한다.

불교는 우리 문화의 첨병으로 기능할 유산과 역량을 갖고 있다. 서구의 합리주의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삶과 종교의 진실에 맞닥뜨릴 때 세계인들은 문화적 충격과 함께 종교적 영성에로 이끌려 질 수 있다. 세속적 가치에 방황하는 세계의 심성을 위무하고 저 너머의 종교적 진실을 우리식으로 가르친다는 사명감에 투철해야 한다.

불교의 생명은 문자보다 의식(儀式)을 통해 유지 전승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교화는 말로 되는 것이기보다 몸을 통한 표현으로 전달된다.

염불과 독송조차 문자를 통한 의미전달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을 통한 교화수단이다. 오디오테이프의 소리를 통한 송광사의 불교의식과 그 장엄한 연주에 전율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가톨릭의 미사도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가 고딕의 천장끝을 돌아나오며 울려나올 때의 종교적 법열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

불교 또한 소리와 말과 동작을 통한 종합의식을 유형의 사찰이라는 장을 통해 표현하는 새로운 기획을 요구한다.

탑돌이나 정대불사는 물론이고, 관등이나 수행의식 등을 고증과 품격을 갖추어 재현하고 창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것을 요즘은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모양이다.

이름이야 아무래도 좋다. 그 개념과 효과는 동일하다. 아무러나 세계인에게 한국불교의 위용을 알리고, 그들을 한 순간에 사로잡을 기획을 해야 한다.

문화란 바로 그런 힘의 집적이고, 그것이 근대화로 외형적으로 커져버린 몸에 우리의 옷을 입히는 작업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불교가 과연 전통의 유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와 종교를 리드할 전향적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받게 될 것이다.

열린마당 가야산 골프장

서울고법이 지난 6월19일 가야산 해인골프장 취소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각계의 대표인사 110명이 '반 환경적 판결'이라고 서울고법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골프장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인사는 산문폐쇄라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령군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골프장건설 반대 이유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불교 산실에 위락시설 조성 '민족수치'"

원담스님 〈해인총림 대책위 집행위원〉

가야산은 예로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수도도량으로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여 왔으며, 가야산과 더불어 공동운명체인 해인사는 1200여년의 유구한 세월동안 한국불교의 산실로 그 역할과 위상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팔만대장경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됨으로써, 이제 해인사 및 가야산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하였음은 물론 민족의 성지로 우뚝 솟았다.

그럼에도, 지난 6월19일 서울고등법원이 사업자측인 (주)가야개발의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은 불교계의 범주를 넘어 국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48만여평이란 어마어마한 면적이 파헤쳐지고 골프공이 날아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가야산을 찾는 우리의 후손들과 불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골프장을 신호탄으로 150만평의 위락시설 조성은, 가야산을 더이상 민족의 성지로 존립시키지 않을 것이며, 해인사도 또한 수도도량으로서의 이미지가 완전히 상실되고 말 것이다.

법보종찰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해인사 옆구리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이 골프장 포크레인 삽날에 파헤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참으로 불교의 존립에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국립공원 보존-사업자 이익 놓고 줄다리기

경과와 쟁점

고령군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주)가야개발이 경상북도로부터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는 94년 12월. 국립공원 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파괴이며, 고령군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백지화 요구가 지속되었다. 이에따라 문화체육부가 지난해 7월 가야산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을 전격 취소함으로써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은 백지화되는 듯 했다. 문체부의 사업계획 취소에 이르기까지는 대구 경북 5대 본말사와 해인사, 쌍계사, 조계종 중앙종회 등의 골프장 저지 결의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그후 사업주인 (주)가야개발에서 고등법원에 사업계획취소가 부당하다면 소송을 제기, 지난 6월19일 서울고법이 '취소 부당'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시 골프장 건설이냐, 국립공원 보존이냐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골프장 건설로 이익을 보게되는 사업자와 공공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것이 쟁점이다. 해인사와 문체부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건설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는 점을 대법원 상고심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해석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수원 오염등 환경파괴 불보듯 '절대 불가'

주민들 주장

가야산 국립공원내에 건설될 해인골프장이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덕곡면 등 고령군 주민들은 결사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부채골 모양의 지형을 하고있는 가야산 중턱 6백~7백m 고지 48만평에 골프장이 건설되면 모든 물이 덕곡계곡으로 내려오는데 급한경사에 산림까지 훼손돼 비가 100㎜만 내려도 300~400㎜에 가까운 물이 약 2백만톤의 담수량이 노리저수지로 유입되면 저수지가 붕괴돼 농경지 침투는 물론 대곡면 일대가 물바다로 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인골프장반대 덕곡면투쟁위원회 장기화총무는 "98년부터 노리저수지가 광역상수도원으로 사용돼 고령군 1개읍 6개면에 식수원이 될 예정이다"며 "골프장에서 잔디보호용 농약 7천5백kg이 1년동안 뿌려지고 이 가운데 70%가 상수원으로 유입되면 오염된 식수를 마셔야 할 형편이다"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해인골프장 건설업체측이 수로건설과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하수 고갈과 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있다.

이와함께 주민들이 천년여 세월동안 신성시 해왔던 가야산의 파괴와 홍수 산사태 등 생존위협과 맞물린 주민들의 반발은 거센 상태이다.

전문가 진단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사무국장

지난 6월19일 서울고법은 각계의 반대속에 문체부에 의하여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던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65번지 일대 48만평의 해인골프장사업에 대해 사업주가 낸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가야산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국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다 주었다.

뿐만아니라 작년 6월21일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정서를 받아들여 국립공원내에는 골프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는 등 국립공원보호정책을 수립하였고, 금년 7월1일부터는 그 시행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변화되고 있는 행정에도 역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야산은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동의 명지이며 법보사찰인 해인사가 위치해 있는 한국불교의 산실일 뿐 아니라 호국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가야산은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1430m의 수려한 경관을 지닌 가야산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해발 600m의 백운동 허리에 흉물스럽게 들어 설 해인골프장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사명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들, 즉 환경파괴, 생태계번화, 지하수 고갈, 상수원 오염, 토사유출, 맹독성농약사용 등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익히 알고있다.

특히 지난 7월1일 한국생물다양성협의회는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가야산의 생태계가 가장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고 생태계훼손의 척도인 가야산의 자연생태계 교란율이 최악인 것으로 보고했다. 이 발표는 더이상 가야산을 개발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내어줄 수 없다는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인골프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지역주민, 해인사, 환경단체 등은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수단의 강구, 백만인 서명운동, 산문폐쇄, 집회, 시위 등 골프장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가야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비록 이번 판결이 불가피했다손 치더라도 국민정서와 공익의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족문화 우선정책 필요"

환경보호 역행행정에 국민 좌절감 느껴

현대만평

박구원



제발 정신좀…

목어

왜 여인의 모습 바꾸지 않습니까

유마거사의 집에서였다.

문병하러 간 문수보살과 유마거사가 문답을 하고있는 자리에 한 천녀가 끼어 있었다.

출가의 법도와 분별심에 대해 말한 천녀에게 사리불이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리도 말을 잘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깨달은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다 생각하는 사람을 부처님은 만심의 무리라 하셨습니다."

사리불은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왜 여인의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인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천녀는 신통력으로 사리불을 여인으로 바꾸고 자기는 사리불의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사리불에게 물었다.

"왜 여인의 모습을 바꾸시지 않나요. 당신이 남자이면서 여인의 모습을 하고있는 것처럼 모든 여성은 여성이면서 여성이 아닙니다." 남녀평등을 상징한 격높은 법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7월1일에서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정했다. 남녀평등과 성차별 의식 해소를 골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95.12.30) 및 그 시행령(96.6.29)을 제정 공포했다. 여성들은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겠지만 '얼마나 성차별이 심했으면 법적장치까지 필요했나' 생각하면 오히려 슬픈 일이다. 그런데 그 성차별이 세속에서뿐 아니라 일체의 분별을 떠난 출가 교단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다.

얼마전 조계종 종회는 산중총회법 심의에서 비구니스님의 산중총회 참여자격과 선거권을 놓고 왈가왈부 열띤 토론을 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구·비구니의 평등권이 거론될 때면 으레 팔경법과 여인오장설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과 부처님 가르침의 진의가 어디 있는가를 재해석한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고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절대평등의 진리앞에서 출가스님들이 남여차별상에 얽매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속세를 이끌어 가려면 세간법보다 수승한 출세간법을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부지런한 습관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에서 생기느니라.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써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아라.

〈숫타니파타〉

협찬 연화사 주지 증실 TEL.(042)585-0035

人 事 말 씀

歸依三寶하옵고

大韓佛敎曹溪宗 第21敎區本寺 松廣寺 曹溪叢林 方丈 廻光堂 壹覺 大宗師께서 지난 6月 23日(陰, 5月8日)午後 9時 30分 松廣寺 三一庵에서 示寂하셔서 6月 27日(陰, 5月 12日) 本寺 大道場에서 曹溪叢林葬으로 永訣儀式을 嚴肅하게 奉行하였습니다. 壹覺大宗師의 永訣式과 茶毘式에 日氣不純하고 公私多忙하신 中에도 불구하고 遠路를 마다않고 參禮하여 주신 宗正 月下 큰스님과 元老會議 議長이신 海印叢林 方丈 慧菴 큰스님, 七寶寺 祖室 昔珠 큰스님, 總務院長 月珠스님, 中央宗會議長 雪靖스님 등 敎界의 元老大德스님과 學界, 政界등 社會 各界各層의 全 四部大衆께 慌忙中 우선 紙面으로 나마 深甚한 感謝의 말씀을 올리오니 널리 海諒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舍利親見및 49齊 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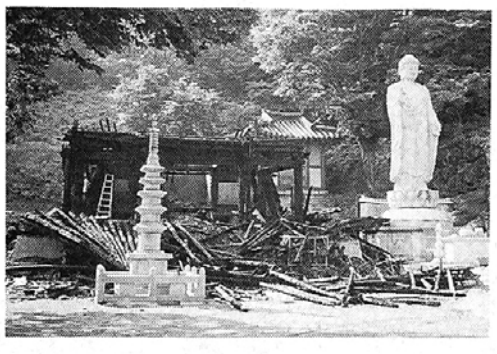
本寺에서는 廻光堂 壹覺 큰스님의 茶毘式후 高潔한 精進의 結晶體인 舍利를 一次 60顆(碎身 舍利 33顆, 齒牙舍利 27顆)를 收拾하여 平素에 住錫하시던 三一庵에 모시고 49齊를 奉行하는 동안 찾아오시는 四部大衆께 公開하여 參拜케 하고 있으니 佛家의 오랜歲月, 不可思議한 禪定의 結晶體인 큰스님의 法身舍利를 親見하시어 신심을 高揚하고 不思議 解脫境界를 體得하시기를 祈願합니다.

큰스님의 49齊는 8月 10日(陰, 6月 26日) 午前 10時
松廣寺 大雄寶殿에서 奉行 합니다.

大韓佛敎曹溪宗 曹溪叢林 松廣寺 住持 玄杲
叢林葬禮委員會 委員長 雪靖
門徒代表 慈經 慈空 無字 合掌

전통사찰 제 74호 영장산 망경암 대웅전 복원불사 및 백일기도 권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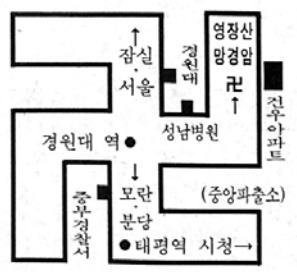
서울 남산이 훤히 마주 보이는 마애불 (경기도 지정 유형 문화재 제102호)
부처님께 고려조 임금님들이 기도 드리던 유서 깊은 도심속의 전통사찰 망경암(望京菴)



이곳 대웅전이 불기2540.4.7. 밤 0시경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소실되어 이로 인한 아픔을 딛고 빠른 시일내 복원하고져 합니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만 중생이 안식처를 얻는다"합니다. 소실된 대웅전 복원불사 원만성취 기도와 더불어 1997학년도 대학수능시험 백일기도를 하오니 좋은 인연이 될 대웅전 복원불사와 대학수능시험 기도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와 동참을 권합니다.

- 기도시작 : 1996년 8월 6일(음력 6월 22일) 오전 10시
- 기도마침 : 1996년 11월13일(음력 10월 3일) 오전 10시
- 대웅전 불사 권선내용 : 기둥, 주춧돌, 대들보, 석가래, 기와, 용두, 문짝
- 일반시주는 1구좌에 30만원 (5만원×6개월 분납됨) 시주자 현판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온라인 : 국민은행 213-01-0349-715, 우체국 102335-0194943-11 (예금주 : 망경암)
- 대웅전 불사에 동참 하시면 편리하게 시주 하실수 있는 은행 지로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은행지로번호 : 7627758, 시중은행에도 지로용지가 있습니다.)

※ 망경암 약도



※문의전화 : (0342)753-3090(사무실)
(팩스)753-3091(주지실)
753-3092(법사실)

대한불교 조계종 영장산 망 경 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53-1호

"지구촌 잔치에 불교정신 심자"

'문화월드컵 이렇게 열자' 특별정담

최근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를 계기로 문화복지적 수준의 격상과 함께 '문화월드컵'을 개최해 문화대국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김영수)도 지난달 27일, 28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2002년 문화월드컵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가졌다. 문화월드컵이란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지구촌에 선보이자는 것. 그렇다면 가장 한국적인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본지는 불교문화가 민족문화의 근간이면서 등시에 전통을 잇는 '살아있는 정신'이란 인식아래, 문화월드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불교 믄화계 원로 3인에게 듣는 특별정담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참 석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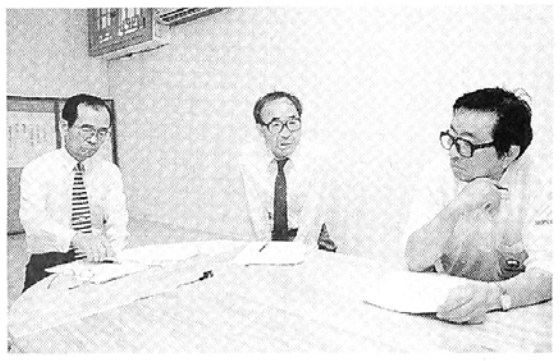
고 은 〈시인 · 본지 논설고문〉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홍윤식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일시 : 1996. 7. 1 오후2시30분

장소 : 본사 회의실



▲고은=한국이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기 전에는 개최지가 확정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향간에 문화월드컵이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니 하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바탕이 불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지구촌에 우리 불교문화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홍윤식=불교를 통한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문화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석굴암의 아름다움이나 박물관·유적지 등에 산재해 있는 불교문화재를 통해 전통문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이를 확대해 불교적인 생활을 일상화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지요.

▲김용운=월드컵의 현장인 서울과 지방도시에 다양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서울 견지동과 인사동에 불교적인 향취가, 명륜동에 유교적인 풍취 등이 남아 있지만 도시계획이 경제논리에 따라 기능적으로 짜여지다 보니 전통문화가 제대로 살아남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도 천편일률적인 도시계획을 벗어나 전통의 멋을 보여주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색있는 문화거리 조성

▲홍윤식=조선시대에는 유교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도성 밖에 절이 세워졌지만 신라시대에는 도시 한가운데 절과 능(陵)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불교문화의 역사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새 시대에 맞는 불교문화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고은=88 올림픽 전야제와 폐막식은 화려한 문화 이벤트로 국민적인 긍지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기억과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월드컵도 바람만 몰고 가는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전통문화는 우리의 삶과 사상과 정신을 담은 결정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월드컵은 우리나라의 문화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용운=서울올림픽 마스게임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타디움 밖 시내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별 축제가 등시에 진행됐더라면 하는 것이죠. 68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경우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잘 치뤄진 적이 있습니다.

▲고은=2002년 월드컵은 공동개최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발전 가능성도 있지만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한·일문화의 적나라한 대비를 통해 두 나라 불교문화를 들여다 볼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서구문화를 융화하는 재생산과정을 겪었으나 우리는 아직 서구문화의 모방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의 우수한 지방문화와 비교될 때 어떻게 평가될 지 의문입니다.

▲홍윤식=일본의 불교문화와 비교할 때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불교는 전통불교의 재해석과 영역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미 일본불교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통해 일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교문화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석굴암 팔만대장경 조차 세계인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생활양식도 마찬가지로 손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불교의식 행사 등 무형적인 요소의 경우는 선종의 강세로 더욱 소홀해 지고 있습니다. 7백여년간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팔만대장경과 함께 해인사 신도들이 참여하는 정대불사의식이 남아 있듯, 유형문화재와 결들여 신행과 볼거리를 함께 갖춘 무형적인 요소를 복원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은=문화월드컵에 불교문화를 이용해 달라고 정부에게만 요청할 것이 아닙니다. 종단적으로 포교의 사명감을 갖고 한국 불교문화를 알려 세계인들이 보고 귀의하게끔 해야 합니다. 또 탑돌이 징대불사 범패 이산 등 세계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비록 정신적인 것이지만 실체화 하고 널리 홍보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불교는 민족혼 결정체

▲홍윤식=지금 조계종 총무원과 동국대가 남산 영산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혼천도의 뜻을 담고 있는 영산재를 전통문화대제전으로 치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단협 주최로 9월 한·중·일 삼국 불교대회 회향과 우란분재에 맞춰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영산재에 전 종도가 뜻을 모은다면 모범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같은 행사들이 꾸준히 계속된다면 문화월드컵에 보탬이 될 것 입니다.

▲김용운=한·일 두 나라 불교문화가 차이가 큰 만큼 문체부가 한중일 삼국의 불교문화를 조명하는 원고를 모집, 이를 영문으로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 음악회에 반야심경 독경을 삽입하는 등 불교음악의 현대화를 시도해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형적으로 더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적인 모습 보다는 특유의 정신적인 문화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합니다.

▲고은=유럽의 축구가 유럽공동체를 탄생시켰듯이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 한일공동개최를 계기로 중국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한자문화권과 해양문화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문화월드컵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윤식=내년 4월부터 동국대는 일본 용곡대와 '월드컵 공동개최와 불교'를 주제로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월드컵을 위한 불교측의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것 입니다.

▲고은=우리나라는 새마을 사업으로 농촌의 전통가옥을 모두 없앴지만 일본 농촌은 고유한 건축양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문화적 자부심이죠. 특히 2003년경에나 국립중앙박물관이 완공 예정으로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필 월드컵이 열릴 때에 중앙박물관이 없어 각종 국보와 보물을 세계에 자랑할 길이 없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김용운=일본의 국보인 광륭사 반가사유상의 보관 및 장엄, 연출 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첨단 시설로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은=현재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중고등학교에 데생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미륵보살반가상을 보다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외국선수들과 임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문제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또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장중한 범종의 소리를 다양한 시청각 자료에 담아 보급하는 등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김용운=문화월드컵의 주체가 관일변도가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진행되는 거국적인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회 구성시 적절하게 문화인들을 배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고은=월드컵은 지방에서도 동시에 열립니다. 지역사찰이 종단 지원아래 각 도시 선수촌에 불교문화를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용운=탑돌이 등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게끔 해 지역사찰에서 불교의식과 놀이를 겸하는 문화행사로 육성했으면 합니다. 탑돌이는 신라때부터 전해내려 온 불교 고유의 낭만적인 문화전통의 하나입니다.

동방예의지국 회복

▲고은=해인사 정대불사나 불국사 탑돌이 행사 때 대형 스크린을 설치,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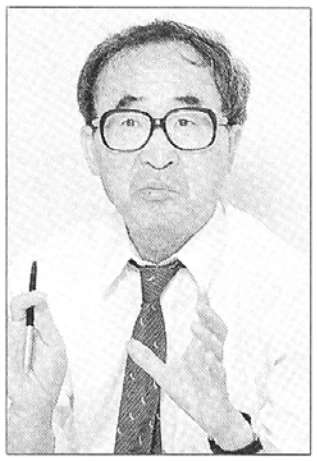
▲홍윤식=탑돌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도록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탑돌이가 전승되고 있지 않아 실패했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국가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은=우리 국민의 문화의식도 나아져야 합니다. 말로만 동방예의지국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문화시민의 의식으로 손님 맞을 채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식의 함양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하심과 부지런함 등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불교적인 미덕이 많다고 봅니다. 식당에서 물그릇, 젓가락 놓는 태도부터 바뀌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홍윤식=일본의 불교신도는 부처님 앞에서만 합장을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합장을 합니다. 이같은 공경과 하심의 미덕을 외국인들에게 발휘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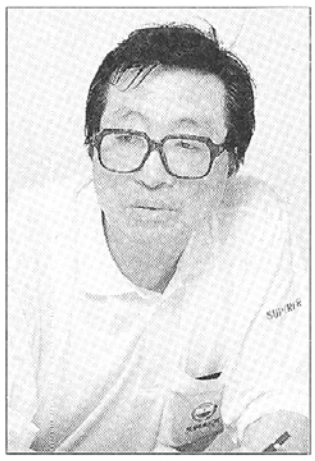
▲고은=그렇습니다. 불자들이 앞장서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불자들은 2002년 문화월드컵을 불교문화를 포함한 전통문화를 세계에 자랑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긴시간 감사합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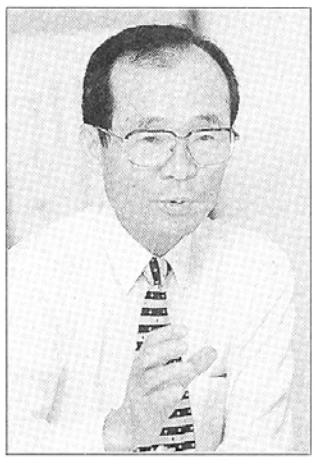
"한일공동 개최 계기 동북아 공동체 결성"

고 은



"지역·시민 참여하는 거국적 문화행사를"

김 용 운



"공경·하심 미덕 발휘 국민 문화의식 전환"

홍 윤 식

문화유산 홍보…탑돌이·범패 대중참여 축제로
반가상·범종소리등 다양한 기념품 개발 필요

1300여년 만에 나투신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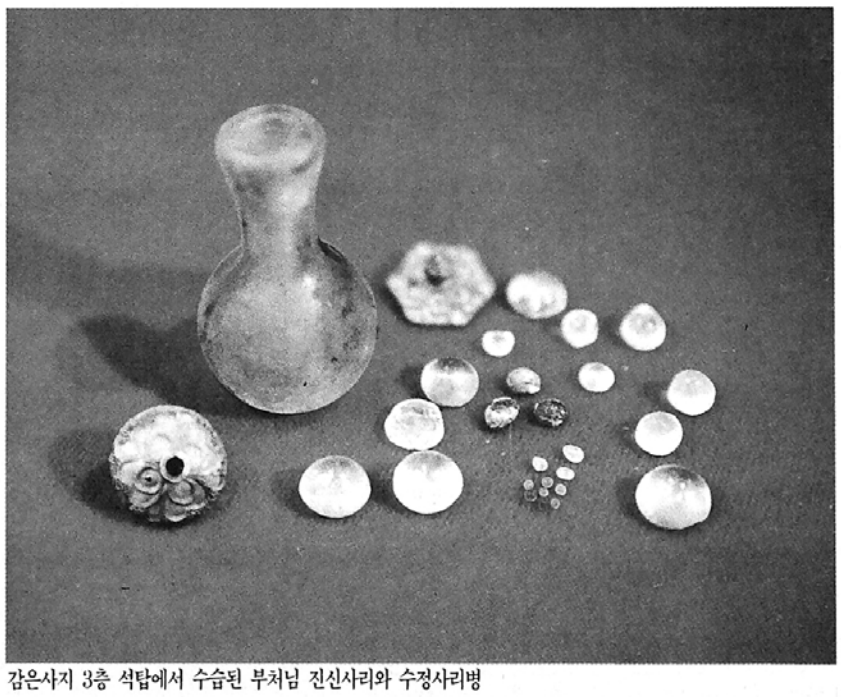
지난 3월 18일,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에서 열다섯과, 그리고 4월 25일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에서 쉰다섯과의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신앙의 상징물인 사리를 원래의 장소에 재봉안하기에 앞서 여러 불자님이 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모습을 뵈옵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불자님께서는 1300여년 만에 처음 공개되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시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친견법회

기간:불기 2540년 7월 11일~30일(20일간)
장소:조 계 사
전시:부처님 진신사리, 수정사리병, 황금 불입상, 기타 장엄물 사진

이운의식

일시:불기 2540년 7월 11일(목) 오전10시
장소:덕수궁 문화재관리국
이운구간:덕수궁 - 을지로입구 - 광교 - 보신각 - 조계사



감은사지 3층 석탑에서 수습된 부처님 진신사리와 수정사리병



나원리 5층 석탑에서 수습된 황금 불입상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법회 안내

거원정사 포교원(02)379-694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1시
교리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법회 화 저녁8시30분
건강법회 마지막 일 오전10시30분

불교문학포교원(02)308-9520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문학법회 매월 넷째 일 오후2시
주부문학교실 셋째 금 오전11시
어린이창작교실 일 오전10시

홍은사(02)822-1990

초하루법회 1~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15~18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첫째·셋째 토 오후7시

보리사(02)562-9939

초하루법회 1~3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신도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어린이·중고생법회 일 오전10시

여의도 포교원(02)784-9136

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경전공부 목·일 오전10시30분

관음사(051)205-0069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학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보문청년회 첫째·셋째 일 오후2시
금강경강좌 매주 수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송광사포교당(0694)857-2328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중·고등법회 토 오후3시30분
청년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

대승심인당(042)282-591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원효사포교원(0416)55-255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룸비니 불교학생법회 일 오전11시
울림 불교학생법회 일 오전9시
공주 불교청년법회 수 오후7시

보광사(0667)763-1192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격주 토 오후2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7시

동원정사(0346)593-7584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1시
자비행법회 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학술·문화·출판등 각종 사업전개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이 재 창 초대원장



"한국불교 전반의 연구와 천태문화가 현대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발기인모임에서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초대연구원장으로 위촉된 이재창교수(천태종 금강불교대 학장)는 지속적인 국·내외 학술세미나로 한국불교발전에 이바지하고 천태학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천태종이 종단의 사세에 비해 학술적인 부분에서 미진했다"는 이원장은 이를위해 본격적인 천태불교학의 정립을 위한 세계기념강연회를 올해 11월 개최하고, 한국불교를 총망라하는 주제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11월 세계기념강연회 열어

앞으로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연구·문화·출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원은 당분간 금강불교대학내에 두고 몇차례 발기인 모임을 가진뒤 오는 11월 공식개원과 함께 양재동 관문사에 연구원 사무실을 마련해 연구에 매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교 차 로

권 통일부총리 예방받아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달 28일 권오기통일원부총리의 예방을 받고, 종교계의 북한수재민지원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지장·시왕탱화 점안식



현호스님(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회주)은 지난 3일 법련사 지장전에서 지장 후불탱화 및 시왕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은해사 주지 진산식



법타스님(은해사 주지)은 지난 3일 은해사 금강율원에서 진산식을 가졌다. 이날 은해사는 지장전 봉불점안식도 함께 봉행했다.

봉원사 주지·부주지 진산식



대운스님(태고종 봉원사 주지 사진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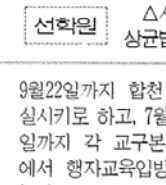


환월스님(봉원사 부주지)은 지난 9일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종단스님 및 신도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세 주지 및 제4세 부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대운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제5대 회장에 취임했다.

창신3동 노인위안잔치

법현스님(태고종 총무부장)은 지난 7일 창신동 원각사에서 자당인 구순임여사의 회갑을 기념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초청해 박완일교수 초청강연회와 경로잔치를 거행했다.

동대직원 350명 연수



법산스님(동대 정각원장)은 지난달 28~30일(1박2일)까지 동대 신임 교수직원 및 전체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직지사에서 연수회를 열었다. 철저한 산사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회에서 종립 동국대의 견학이념과 참불자로 거듭태어날것을 당부했다.

수국사서 '불교와 문학' 특강

고은씨(시인·본지 논설고문)가 오는 18일 오후2시 수국사 황금불교교양대에서 '불교와 문학' 강연을 한다.

뉴질랜드 포교위해 이민

인종서법사(전 해동고 교법사)는 뉴질랜드 현지의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포교를 위해 이민수속을 밟아 지난 5일 출국했다.

인 사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원정스님 △교학국장 미등스님 △기획국장 청회스님

선학원 △사무국장 박상균법사

이전 진각종 신촌심인당이 지난달 20일 마포구 서교동 459-10번지로 이전했다. (02)334-1398

한상린기획실은 최근 사무실을 중구 필동1가 51-11 하니빌딩 901호로 이전했다. (02)267-8101

게 시 판

▲자원봉사자 모집=송파재가 노인복지센터는 거동 불편한 노인 수발 및 말벗이 되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교사·시설장 모집=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어린이집에서 일할 시설장 1명과 교사 5명을 모집한다. (032)325-2161

▲어린이 수행학교=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는 오는 21일~23일까지 지리산 화엄사 일대에서 제4차 어린이 수행학교를 연다. 062)263-4660

▲법사 하계수련회=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묘봉)은 오는 25일~27일까지 충남 공주 신원사에서 법사교육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2)720-1836

▲조계종 행자교육=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제11기 행자교육을 오는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합천 해인사에서 실시키로 하고, 7월22일부터 31일까지 각 교구본사와 교육원에서 행자교육입방 신청을 받는다. (02)732-4923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장원

주 운 숙 씨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제 마음을 잡아준 것이 참선입니다. '이뭣꼬' 화두를 매일 30분씩 들었어요."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2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명창부문 장원(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운숙씨(43, 법명 법일화)는 불안과 강박관념을 없애주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준 참선과 108배 염불정근이 큰 대회에서 차분히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돼 주었다고 말한다.

"참선·108배 쉼없는 연습 결실"

33세에 입문한 늦깎이 소리꾼으로 시작한 주씨가 수십년 공부한 쟁쟁한 소리꾼들을 물리치고 최고상을 차지한 데에는 남도명창이었던 아버지(주광덕)의 혈통탓도 있지만 목이 쉬고 피가래가 나와도 쉬지않고 연습에 몰두한 끈질긴 근성의 결과이다. 주씨는 이번대회에서 심청가를 불렀다. 이는 김연수 선생으로부터 오정숙 이일주 명창으로 내려오는 동초제의 맥을 이은 것. 또 대구의 이명희명창(판소리 흥보가부문 무형문화재)에게는 흥보가를 배웠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소리연습을 하는 주운숙씨는 소리의 불모지 대구의 판소리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94년 판소리연구소를 세워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고 대구 돈보스코예술대에도 출강하고 있다.

"이제야 소리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명창소리를 들을 수 있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운숙씨는 현재 수궁가를 공부중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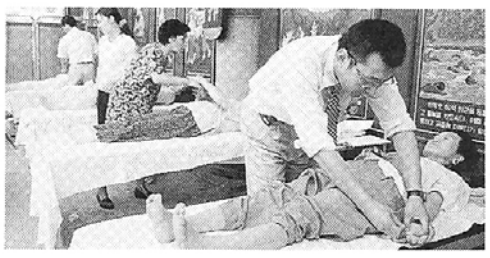
만해스님 열반 52주기 추모제

만해 한용운스님 열반 52주기 추모제가 6월29일 선학원 중앙선원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선학원장 법진스님을 비롯 스님과 대불청회장단,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스님의 넋을 기렸다.

이날 만해스님의 유가족으로 딸 한영숙여사가 만해스님의 영전에 헌화했다.

추모제에서는 조계종총무원,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경불련 자비의집, 봉은사, 관음종 묘각사 등 불교계 5개단체가 삼풍참사 1주기 추모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의학 수호위한 무료의료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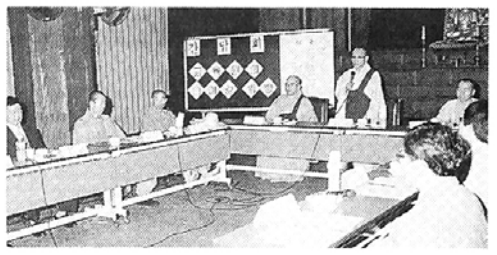
대한한의사협회, 민족의약수호국민운동본부, 대한한의사협회불교회가 공동주최하는 무료의료봉사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조계사에서 펼쳐졌다.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의학 수호운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료진료에는 의료진 3백여명이 참가해 매일 5백여명의 불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서경보스님 영결식 엄수

일붕선교종 종정 서경보스님 영결식이 지난 1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왕청장으로 엄수됐다. 다섯번의 명종과 월탄스님의 행장소개를 시작으로 거행된 이날 영결식에 이어 일봉사에서 가진 다비식 후 권골사리 16과 두정골사리 6과 두발사리 15과 치아사리 9과등 83과와 덩어리사리등이 수습됐다.



조계종 '교육원의 방향' 간담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4일 총무원 1층법당에서 '교육원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 비롯 종범(중앙승가대교수) 도법(실상사주지)스님과 김종희(교육부 사무관) 심익섭(동대 행정학)교수등이 토론자로 참석, 교육원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불교 5개단체 '삼풍감사패' 받아

지난 6월29일 삼풍참사 1주기를 맞아 삼풍백화점 앞 광장에서 2천여명의 추도객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렸다. 음악제, 거리행진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펼쳐진 이날



여군사관후보생 임관수계식

여군사관후보생 임관수계법회가 지난달 26일 호국원광사(주지 한상길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여군학교 입교후 16주동안 호국원광사가 실시한 불교교리강좌를 이수한 안경화소위 외 17명의 불자여군사관후보생이 계를 수지했다. 또 기념품 전달식 및 송별다과회를 마련,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생활 속의 불교 ⑧⓪

믿음과 실천의 바퀴가 구를 때만이

가령 어머니 뱃속에서 어느 날 자궁문을 열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곳이 마냥 따뜻하고 편안하다 하여 머물기만을 고집했더라면 이름 석자도 없었을 게다.

아늑한 엄마 품에 파묻혀 언제나 젖먹이로 남기를 고집했더라면 자라서 소년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가령 부모님의 보살핌이 편하고 좋아서 소년인 채로 있으려 했다면 어른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기 집에서는 어머니의 체액을 먹고 태어나서는 젖을 먹고, 좀더 자라서부터는 부모가 마련해 주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먹고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기를 낳아 기르게 되며 부모를 봉양하게 된다.

태아에게 세상 모습이 어떻더냐고 물으면 아마도 '사방이 벽'이라고 할 것이다.

젖먹이에겐 엄마의 품이 세상이고 걸음마를 막 떼기 시작한 아기에겐 안방, 건너방이 세상의 전부일 것이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이 참 넓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법 수행도 이와 같다. 우리가 어느 때 진리의 가르침을 만나서, 따라 배우기로 마음 먹지 않는다면 새 세상을 구경할 길은 없다. 세상 구경은커녕 어둡고 답답한 무명의 탯집 속에서 그곳이 마냥 편하고 좋은 줄로 착각하며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다행히 발심을 해서 새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다면 그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또 아기가 어른으로 자라듯이 수행 정진을 해야만 한다.

그러자면 처음엔 누구나 조건 없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 젖먹이가 그렇듯이 옳고 그름의 사량 분별을 떠나서 무조건 적으로 가르침을 빨아 들여야 한다. 엄마의 젖이 아기에게 완벽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진리의 가르침 역시 무명을 벗기는 완벽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첫단계를 지나 수행이 조금 익어지면 그때는 스스로 숟가락질을 하듯이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한다. 부모가 차려준 음식 상에서 이것 저것 골라 먹는 소년처럼 스승의 가르침, 경전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 행을 통해 도리를 익혀 가야 한다. 그래야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듯 수행도 무르익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남을 가르치게 되고 불은에 보답할 수도 있게 된다.

믿음과 실천의 두 바퀴가 쉬지 않고 구를 때 수행자는 비로소 이 세상이 넓고도 배울 게 많은 참선 도량인 줄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고 지냈던 세상이란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어둡고 답답한 질곡의 세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때로는 영양 실조나 지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불법에 대한 믿음과 실천의 힘도 제각각이기에 수행의 결과 역시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건장한 성인이 되어 자녀 양육과 부모 공양의 도리를 다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제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듯이, 수행을 통해 대 자유인의 경지에 이르러 남을 가르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설익은 밥을 지어 저도 못 먹고 남도 먹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믿음과 실천의 바퀴를 열심히 돌리는 것, 그것은 마치 아기가 자라 건강한 성인으로 바로 서는 도리와 다름 아닌 것이다.

협찬: 김 연 수

"예술혼 가득…보존·예찬 이구동성"

특 별 기 획

경주남산 재조명

탑골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유희조사상 앞에서 한 노시인은 발길을 붙잡힌 채 '어찌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인가'고 탄식한다.

"어찌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인가/이 관음상을 홀로 남겨두고/이몸 다시는 이곳에 못오리/살아서 이몸 갖곤 다시는 못오리/문득 이러한 생각이 스치자 /어렵쇼 이몸 봐라/이몸은 어느덧/그 관음상 차거운 돌입술에/입술을 포개었다"(박희진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유희조사상' 중)

이런 심정이 어찌 시인뿐이랴. 남산은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끝내 남산같은 삶으로 이끌고야 만다. 남산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들은 결국 남산의 아름다움을 혼자서는 감당치 못하고 예찬하고 전염시킨다. 각자가 지닌 소질과 열정을 쏟아내고야 만다. 운명마저 바뀌어진다.

연재 순서

① 총 론
② 남산은 어떤 산인가
③ 남산 훼손실태
4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⑤ 남산 이렇게 지키자
⑥ 남산으로 떠나자



◇이호신作 상선암 마애석가여래대불.



◇윤경렬



◇이근후



◇이호신



◇김구석



◇김덕수

시인·화가·사진작가 줄이어…남산사랑모임등 길안내 자청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첫번째로 윤경렬선생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원래 고향은 함경남도 주을. 30대 후반에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이라는 화두를 품고 남산 자락에 안겼다. 당시 개성박물관 관장이던 고유섭 선생의 질책을 듣고서 였다. "일본에는 뭣하러 갔어. 참된 아름다움이란 원래 있던 곳에서 싹이 터서 꽃피고 열매맺는 법이야."

그후 50년을 한결같이 남산과 함께 살았고, 어느덧 그의 깊은 눈과 바람불면 하늘거리는 하얀 머리카락은 남산의 한 부분이 되었을 정도다. 〈경주남산고적순례〉(이후 불지사에서 〈겨레의 땅 부처님 땅〉으로 보완해 출판)를 통해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에 의해 조사된 절터 55개를 115개로 바로잡고 40여개 골짜기마다 가득한 유물유적을 세상에 드러냈다.

남산은 예술혼의 젖줄이다. 화가와 사진작가 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박희진 시인과 화가 이호신씨는 남산시화집을 펴낼 계획이다. 한달이면 한두차례 3박4일의 일정으로 남산에 파묻힌다. 이호신씨는 "어느 때는 한곳에 앉아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빛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남산과 돌부처와 돌탑을 바라본다"며 "평생토록 그려도 남산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웃음으로 뒷말을 대신했다.

사진작가들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강운구 안장헌씨 등이 남산관련 책자의 사진을 거의 전담해왔다. 최근에 김성철씨는 남산을 사진집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석기삼씨(경주보림칼라 대표)는 남산의 옛모습을 담은 사진을 비롯 가장 많은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

김구석씨(경주사적관리사무소)는 사진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사람이다. 지난해 자비를 들여 그동안 담아온 1만컷 가운데 1백여점을 뽑아 최초의 남산사진전을 열었다. "우리 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기품있는 삶의 자세를 제공해주는 것인지 남산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것에 대한 무관심이 곧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절박한 심정이 남산에 묻히게 했나 봅니다."

지난해 '세월과 바람이 빚은 한국인'이라는 의미심장한 부제를 달아 〈돌부처〉를 펴낸 이근후교수(이화여대 신경정신과)는 석굴암이 세계 최고의 미라는 확인을 위해 10여년 넘는 석불순례에 나섰고, 지인들과 함께 한국석불문화연구원을 구성할 정도로 석불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다. 그도 남산에 이르러서야 허기진 듯 찾아나선 순례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교수는 또 남산석불지도 '경주남산'을 이재곤씨(고산자의 후예를 대표)와 함께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돌부처에 관하여 두 가지 형태의 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부처〉처럼 주관적인 느낌을 사진과 함께 실은 에세이집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돌부처에 관한 학술자료집입니다." 그의 남산순례는 좀처럼 그칠것 같지 않다.

송재중씨(신라중학교 교사). 남산 실측지도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88년 2월말 신라중학교에 발령받고 이산짐을 꾸려 영주에서 경주로 들어설 때 석양빛이 황금색으로 빛을 뿜고 있는 남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사 산이 아니구나!' 이때 이 산이 남산인줄도 몰랐으나 처음부터 남산은 나를 반겨주었으며, 우리는 이렇게 만났다." 남산과의 첫 대면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후 6년여 동안 주말과 방학이면 남산에서 살았다. 한 유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잡목과 덩쿨이 덥힌 길없는 골짜기를 헤집고 다녀야 했다. 93년 지도를 완성 지금까지 1만부 넘게 보급하고 있다.

남산사랑모임과 신라문화원을 이끌고 있는 김덕수씨와 진병길씨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의 안내를 받아야 남산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다. 남산사랑모임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는 '남산을 알기 위한 강좌'를, 셋째주 일요일 오전 9시에는 어김없이 남산순례에 나선다. 이와함께 월명재와 충담재를 매년 봄 가을 남산에서 개최, 고승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남산의 문화를 일궈내고 있다.

신라문화원 최민희씨(계림고등학교 교사)는 일요일이면 길안내를 자청하고 나선다. "남산은 무작정 오르는 산이 아닙니다. 공부하기 위해 올라야 하는 산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길안내를 자청한다는 것이다.

경주남산을 남산이게 하는 것은 발길 닿는 곳마다 마주치는 문화유적이다. 석불과 석탑, 깨어진 기와조각, 성터….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낸 조상들의 숨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 큰 산도 아니면서 40여개의 계곡을 거느리며 결코 작은 산에 머물지 않는 신비함이 간직된 곳.

남산의 유적들은 이와함께 자연그대로의 모습과 사람의 손길이 전혀 인위적이지 않는, 조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다. 남산은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며, 아름다움의 전형을 깨닫게 해주는 산이다. 남산을 닮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성운 기자

윤경렬 '남산지키기'에 평생 | 이근후 10년 넘게 석불순례
송재중 실측지도 제작 보급 | 박희진·이호신 시화집 준비

에이즈의 원인과 처방법은

문 요즈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에이즈는 성관계나 수혈에 의해 감염된다는 게 의학계의 정설인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감염경로에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 반론이란 환자의 인권보호차원인 것 같습니다. 반론이 오히려 에이즈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려 더 큰 파국을 가져오게 하지는 않을는지요.

〈김보라·서울시 노원구〉

답 나는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우려하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중요한 것은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왜 정체를 알기 힘든 질병이 계속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현대과학은 스스로의 힘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물질에만 매달리고 정신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그래서 지금의 과학은 반쪽과학입니다.

아무리 완벽해진다 해도 50%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신계 50%를 터득하지 못하고서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분야, 물리학이든 의학이든 그게 다 마음도리를 아는 심성과학이 될 때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을 다스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질병이라는게 유전성, 세균성, 영계성, 그리고 인과, 업보성에 의해 생기는데 그 이치를 안다면 물질적 처방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 하나의 몸이 아니라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사는 중생의 국토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 말씀이 중생의 병이 나아야 내 병도 낫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내 육신의 모든 중생이 보살로 화할때 나도 보살이 되고 마구니가 되면 나도 마구니일 밖에요.

따라서 내 한 생각 보살의 마음을 내면 중생들도 보살이 되어 따라줄 것이고 나쁜 생각, 독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악귀로 변해 파업을 일으킬 것입니다.

에이즈같이 전에없던 병이 생기는 것은 인간들이 전에 안하던 생각을 일으키고 문란하기 짝이없는 짓들을 새삼스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또한 물질과학이 뒷따르기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육신의 모든 생명체들, 아니 일체 생명있는 것들은 밝음을 알고 밝음을 따라 진화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문란해지고 사량분별이 어수선해지면 그런만큼 오장육부의 과업도 강력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내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온자리에 되놓아라, 되놓으면 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성이든 업보성이든 영계성이든 세균성이든 다 나온 곳에 되놓고 맡긴다면 고여서 더러워진 물에 새 물을 가미하는 결과가 됩니다.

에이즈의 발병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도리를 외면하고서는 그 근본을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나뭇잎이 누렇게 뜨는 것을 보고 잎새만 만지는게 물질과학이라면 심성과학은 잎새가 아니라 뿌리를 밝히고 뿌리를 믿고 뿌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근치(根治)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임종시 불보살 명호부르면…

문 아무리 지중한 죄업을 지은 이라도 임종시에 열번만 부처님을 염하면 지옥고를 면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정업(定業)은 면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열번 염하는 일로 인과법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요?

〈이숙자·춘천시 효자동〉

답 인과법칙의 씨앗은 결코 썩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물고기의 머리를 세번 내리친 일로 사흘간 두통을 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정업에 대해 말씀하신 걸로 되어있지요. 그러니 임종시에 부처님을 열번 염한다고 지옥고가 면해지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걸 적어놓은 기록들을 보면서 문자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본래 나라고 규정지을 것은 아무것도 있질 않습니다. 찰나찰나에 쉬지않고 돌아가는데 업이 붙을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늘 비유삼아 말씀드리지만 누구라도 순간순간 아들이 되었다가 아버지가 되었다가 친구가 되고 형 동생이 되고 남편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때의 나를 꼭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있던가요?

그렇게 만물은 찰나찰나 고정된 모습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지요.

그러니 운명은 뭐고 팔자는 또 무엇이며 정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중생들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실상을 모르고 나다, 내것이다 하며 규정지으니까 엄연히 주고받는 도리가 있게되는 것뿐이지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십념에 지옥고를 면한다 하는데 면하고 자시고간에 지옥고 또한 본래는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가령 붙을 자리가 있다면 왜 일념은 아니고 하필이면 십념입니까? 일념만년이란 말도 있지만 한 생각에 우주삼천대천세계를 공굴리듯 굴리는 도리도 있는데 한 생각 무겁게, 진실으로 되돌린다면 일념이다 십념이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일 뿐이지요.

모쪼록 문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자유인의 도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발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드음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기때문에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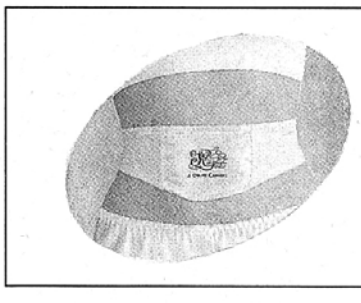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경 스님)
● 무설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종회
● 전화 :(0335)34-9490, 39-1906
이건/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02)597-7581
서울강북지회:(02)747-7033
부산지회:(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053)323-2598
대전지회:(042)222-4936
광주지회:(062)228-8544
제주지회:(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0596)73-0039
경남마산지회:(0551)23-9016
경남울산지회:(0522)74-7536
창원지회:(0551)62-0076
제천단양지회:(0443)46-3023
의정부지회:(0351)873-0532
경주지회:(0561)772-3255
강릉:(0391)645-2117
거창지회: 0598-42-8534 광암사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영국국립도서관이 공개한 고대 인도문자로 기록된 세계 최고 불경.

세계 最古 불경 발견

자작나무껍질에 고대 인도문자

영국국립도서관 공개

현존하는 불교기록중 가장 오래된 불경이 발견됐다.

런던 소재 영국국립도서관이 18개월전 골동품 거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불경은 자작나무 껍질에 고대 인도문자로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시를 기록한 것들로 모두 60여개 조각들로 이뤄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 불경을 인도 북구 간다라 지방의 고대 불교도들이 사용하던 경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불경의 자세한 입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지방의 토기안에 2천년 이상 보존돼 있다가 최근 발견돼 영국으로 흘러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으로부터 해독을 의뢰받은 고문자 전문가인 리차드 살로만 교수(美 워싱턴대)는 이 불경의 글자가 고대 인도문자임이 확인됐으며, 내용을 해독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봉수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사진에 나타난 문자를 볼때 6단계의 변용을 거친 브라흐미(인도 고문자)의 3단계 형태의 문자로 현존 팔리어문헌과 비슷할 가능성도 있다"며 "1세기에 제작된 것이 맞다면 대승불교보다는 원시불교나 부파불교의 문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불경은 서기 1~2세기경 제작된 팔리어 '법구경'으로, 이번에 발견된 불경은 팔리어 '법구경'보다 1백년 정도 더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日 대정신수대장경 수록 '화엄경문답'

의상대사 강의록 '추동기' 일부

한국교원대 김상현교수 주장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돼 전하고 있는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 상하 두 권이 그동안 알려졌던 중국 당대(唐代)의 승려 법장스님의 저술이 아니라 해동화엄종(海東華嚴宗)의 창시자인 신라시대 의상스님(義湘, 625~702)의 강의를 기록한 '추동기(錐洞記)'와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상현교수

한 내용을 그의 제자 지통(智通)이 핵심을 간추려 문답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과 고려시대 승려 균여의 저서에 15편 정도가 전할 뿐 완전한 것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화엄경문답'이 법장스님의



問此他已成佛邦何爲自未成佛乎答邦他佛之義非無而遠緣所以者凡諸佛爲衆生設意爲欲衆生自亦得彼果故令修行衆生望自當來所得之果德爲欲得情身命修行不爲得他佛果故修行正令菩薩心修行佛但吾當果已成佛他佛也此義不疑怪也又他已成佛自當果佛所以者何他成佛時即得佛平等果又吾當果佛即是他今成佛以者何吾得當果佛時即得三世佛法故如是轉展更互平等平等無差德又此吾佛於一切法界有情無情全即作佛無一物非吾證佛故若准

◇일본 대정신수대장경에 전하는 '화엄경문답'(사진 아래)과 신라의 상스님의 화엄경 강의 내용을 기록한 '추동기'의 동일한 내용 부분.

기존 唐법장스님 저술로 알려져

사실 확인되면 화엄학연구 도움

김상현 교수(교원대 역사학과)는 지난 2일 '화엄경문답'과 '추동기'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의상스님의 대표적 저술인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만 의존해온 의상의 화엄사상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동기'는 의상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소백산 추동에서 90일간 화엄경을 강의한 내용을 제자가 기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교수는 일본학계의 이같은 연구성과에 주목,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전하는 '추동기'의 문답 15편과 '화엄경문답'의 1백64편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균여의 저서 등에 전하는 '추동기'의 일문(逸文·탈락되거나 빠진 문장)은 15회 정도인데 이들 인용문 모두를 화엄경문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추동기 중의 같은 부분을 중복해서 인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9회의 인용문 1천1백여자가, 극히 몇글자를 제외하고는 화엄경문답 중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권탄준 교수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의상스님의 저술이 빈약한 상태에서 이번 발견은 획기적 사실"이라며 "의상스님의 화엄사상은 물론 그 변천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인터뷰 국립문화재硏 명예퇴임 장경호 소장

"이젠 능력있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죠. 그리고 연구소도 새사람을 만나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퇴임을 자청했습니다."

지난 1일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용퇴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장경호 소장은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자청해 자리에 연연해하는 공직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던졌다.



61년 문화재관리국의 전신인 황실사무총국에 발을 들여놓은 장소장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직을 맡은 것은 지난 87년. 그동안 유적조사실

"소중한 문화재 내몸처럼 돌봐야죠"

을 비롯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와 목포해양유물전시관(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미륵사지·경복궁 등의 수많은 발굴조사를 통해 학계에 방대한 연구자료를 제공했다.

그런 그였지만 그래도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오히려 크다. 소장재임 10년동안 문화재연구소를 명실상부한 국가연구기관으로 육성시키지 못했다는 것과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많은 성보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재를 자기 몸처럼 아낄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문화재를 보호·육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다루는 인력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장소장은 앞으로 대학강의(서울대·동국대)와 신라사찰건축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는 책의 집필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정신가치 중시해야 참된 복지"

물질지원보다 종교적 이해 더 중요

이혜숙씨 논문서 주장



지난 94년 동국대에서 '불교사회복지학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혜숙 박사(41)는 최근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인 '임상사회복지에서의 Spirituality 개념화를 위한 연구'에서 우리의 사회복지는 지금까지 물질적 원조와 그 정책화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삶의 총체적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임상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도움을 받는 사람)간에 'Spirituality(정신과 관련되는 것이나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 이해가 사회복지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면서 모든 종교는 개인적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전제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공유할 수 있는 종교적 원리를 강조했다.

즉 클라이언트의 정신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종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기본 지식이 선행돼야 하며, 이와 아울러 Spirituality로부터 인간의 최대가치를 이해하고 중시함으로써 진정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박사는 미국 켄사스대학에서 '종교와 사회복지'를 연구중이다.



◇독일철학자 헤겔

"헤겔 空집착 불교의 숲 못봤다" 주장

가산硏 강연회 참석 이동인·볼파르트교수



◇이동인박사



◇볼파르트교수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18세기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 헤겔(1770.8~1831.11)은 불교를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지난 2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한국헤겔학회가 경국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킨터 볼파르트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는 헤겔의 불교관과 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이 개인주의 풍조가 만연해 있는 서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됐다.

이동인 박사(명지대)는 '헤겔의 불교이해' 주제발표에서 헤겔의 불교이해는 대승불교의 '空'사상에만 집중돼 있는 등 불교에 대한 정당한 파악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시작에서 종말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실체를 인식, 재생성해가는 것이나 불교적 세계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이 아닌 '윤회'의 순환론적 역사관으로 반복의 조건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정신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헤겔의 변증법과 중관철학의 변증법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무심론등 동양사상 서구사상 능가…상호 융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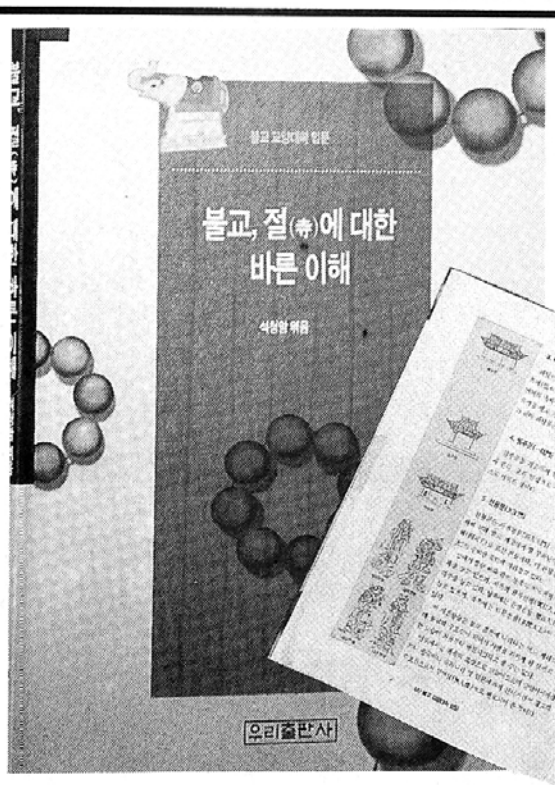
이어 발표에 나선 킨터 볼파르트 교수(獨 부퍼발대 동아시아연구소장)는 '중국과 헤겔' 주제발표를 통해 자연과 사회속에서 인간을 살피는 연기적 철학이 담긴 동양사상과 서양철학의 융합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킨터 볼파르트 교수는 우선 헤겔은 불교를 '자기 내적존재'의 종교로 규정하고 도교를 철학이나 종교로 구분하지 않은 채 道를 이성으로 파악하는 등 동양종교를 동양사회에 대한 관심의 틀안에서 '자연종교'의 범주로 분류하고 이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는 인간에만 초점을 둔 서구사상과는 달리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도교의 영향을 받은 선불교 역시 도덕적 윤리 문제 등 모든 환경에서 깨달음을 강조해온 사상으로 선불교의 무심론과 도교의 무위자연사상은 헤겔이 파악했던 것 그 이상으로 깊은 철학을 지닌 동양사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럽의 철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동양종교와 문화를 배우는데 인색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지적능력의 한계를 인식 중국을 비롯한 동양과 지적인 상호교류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제는 서구에서도 불교, 도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하는 비교철학의 필연성을 인정해야 하며, 인생의 참의미를 올바르게 일깨워 줄 수 있는 동양사상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명우 기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배우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요
지혜로 터득하는 것은 유무를 옮기는 것이라.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도
그를 행하지 않으면 이 책은 무용지물이라
- 서문중에서 -

불교 교양대학 입문

불교, 절(寺)에 대한 바른 이해

청암스님께서 각 사암에 불교 교양대학을 개설 하시는 스님, 그리고 불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불자님께 쉽게 접할수 있도록 펴낸 교제 입니다.

96년 7월 17일 출판 7월 23일 2차 출판

- ◆ 이 교재는 각 사암에서 주 1~2회로 3, 4, 5, 6개월 코스로 강의 할 수 있는 불교 교재 입니다.
- ◆ 이 교재는 불교을 알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아주 쉽게 불문에 귀의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이 교재는 불교 예법부터 불교건축물, 기초교리 반야심경 강의 까지 손수 그림과 함께 강의한 것입니다.
- ◆ 이 교재는 청암스님께서 직접 95개의 건물, 불상까지 자세히 편집되어 있습니다.
- ◆ 이 교재로 혹 사암 스님께서 강의 하신다면 교재겸 필기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페이지마다 메모 할수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 이 교재는 스님이 강의 하지 않아도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법보시 용으로 구입 하셔도 됩니다.
- ◆ 이 교재는 전국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 이 교재가 한권이라도 필요 하신다면 전화로 주문하시면 즉시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 만약 다량으로(50권) 주문 하시면 택배로 신속히 보내드리며 권당 1,200원을 할인합니다.
- ◆ 청암스님께서 이 책의 작은 이익금은 금하선원 어린불자들을 부처님께 참배 시키는데에 쓰신답니다.
- ◆ 많은 스님께 합장 하옵니다.
  저의 청암스님의 땀 흘리는 모습은 비오는날 연잎에 티 없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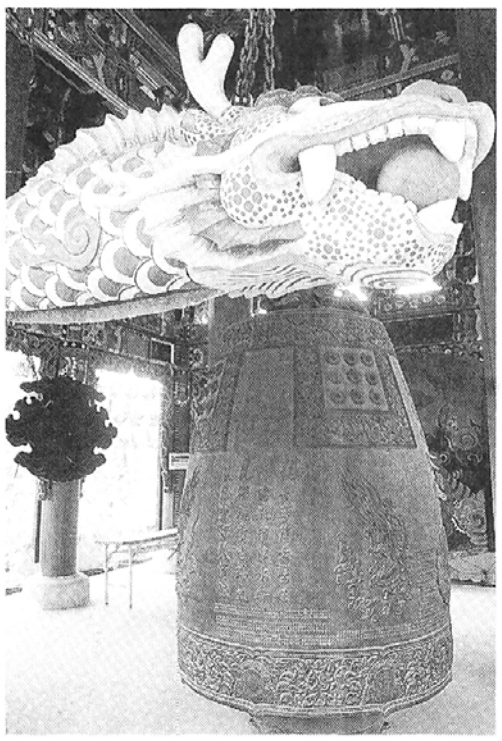
정가 :6,000원

주문 문의 전화 : (02)445 - 3261 금하선원 금하선원법우회 : 총무부 총무 장묘진성 합장

"무상정각·중생구제 추구"

보르헤스의 ⑲ 불교강의

대승불교 ①



◇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개인적 성불보다는 중생 전체의 성불을 위해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또 중생의 윤회 속에 성불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날짐승이나 물밀짐승은 물론 축생과 지옥중생의 성불도 가능한 것이다. 사진은 모든 중생이 성불하길 염원하는 의미를 가진 범종·북·목어·운판 등 사물.

'자비실천' '더불어 성불' 강조…利他지향 보살사상

대승과 원시불교의 기본교리는
삼법인·사성제에 기초한다
그러나 대승은 자신의 성불 미루더라도
타인의 성불을 위하는 이상향 제시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나온 특이한 이론일지라도 기존의 유명한 사상가의 이름을 빌려 알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거나, 스승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의지 혹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고명(高名)을 빌어 새 이론에 권위를 부여하려는 목적 등에서 그러는 것이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전에는 소수의 직계제자들에게만 자신의 내밀한 사상을 강의하고 오후에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일반론을 강의하였다고 한다. 비전(祕傳)은 아무래도 극소수에게만 전해지는가 보다. 피타고라스와 플라톤도 그랬고 이점에서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다.

열반에 들기 직전 부처님은 제자들 중의 한명에게 기존에 행한 설법의 요약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부처님은 지상에서 뿐 아니라 천상에서도 설법을 베풀었으며 그 비전(祕傳)은 용왕의 지하궁전에 보관되어 있다가 기원후 2세기경에 나가르주나(龍樹)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여기서 대승불교가 탄생한다.

부처님이나 예수같은 옛 성인들은 스스로 종교를 창시하려고 하지 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목적은 업보의 윤회를 믿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소망하는 수도승들의 개인적인 해탈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이의 소망이었다. 프랑스 시인 르꽁뜨 드리슬은 그 적멸에의 열반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간과 이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생이 휘저어 놓은 평정을 가라앉혀 주소서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비운다는 표현은 채운다는 표현보다 어딘지 모르게 어려워보인다. 모든 종교는 시대에 따른 '신도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하고, 불교도 오랜 세월동안 깊고도 다양한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대승(大乘, Mahayana)이란 말은 '큰 수레'를 의미한다. 이와함께 원시불교는 소승(小乘, Hinayana) 즉, '작은 수레'라고 불리게 되었다. '수레'라는 용어는 다음의 비유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큰 집에서 불이 났는데, 한사람이 염소가 끄는 '작은 수레'를 타고 혼자서만 빠져나왔다. 반면 다른 사람은 소가 끄는 '큰 수레'에 대중을 싣고 빠져나왔다. 두 사람의 행위 중 어떤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인가? 해답은 자명하다.

대승불교는 신도들에게 수많은 전생(轉生)을 통하여 자신이 성불(成佛)도 하고 많은 타인들도 구원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긴 과정 중의 한 단계일지라도 이 생은 열반에 이르는 소중한 단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하여 적멸에의 지향은 생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게 되고, 비움은 곧 채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움과 채움은 서로 상응하게 된다.

몇몇 불교사학자에 따르면 이미 아소카왕(기원전 264~228)시절부터 종파의 분열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유명한 왕은 불교를 신봉했지만 신앙을 강요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종교전쟁은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교와 그 지파인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유물이다. 동양에서는 한사람이 여러 종교를 숭배해도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 곳에 여러 종교의 제단이 같이 꾸며져 있는 곳도 있다.

대승불교 이론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 논리체계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긍정과 부정을 되풀이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해서 결국 논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본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의 건축물을 부수기 위하여 논리의 도구를 사용(때로 남용)한다.

대승과 소승 둘 다 기본교리는 같다. 양자는 모두 삼법인(제행무상·일체개고·제법무아)과 사성제(고·집·멸·도)에 기초한다. 그런데 대승불교는(서양철학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절대이상주의다. 우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색·성·향·미·촉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 인식된 표상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환(幻)이고, 산다는 것은 바로 꿈꾸는 것이다. 후에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꿈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폭풍」, 4막1장)

서양철학자 버클리(Berkeley)와 쇼펜하우어도 현실을 환으로 보는 철학을 전개했다. 끝없이 윤회전생을 하는 속세(Samsara)는 이미 열반(Nirvana)의 세계이다. 이것을 의식하기만 하면 우리는 열반에 이르른다. 초원의 억새풀(억조창생)까지도 성불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젠가 도달할 해탈의 그날을 기다리며 육도(六道)를 윤회하는 것이다.

소수의 수행승을 대상으로한 원시불교의 서원은 다시는 다른 육체로 환생하지 않겠다고 한 굳건한 의지를 다지고 적멸에 이르러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다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서원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성불을 미루고서라도 타인의 성불을 위해 노력하는 보살의 이상향이 불타의 이상향과 나란히 제시되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매진할 것을 권했다. 반면 대승불교는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복전(福田)은 팔정도를 통해 얻어질 뿐만 아니라 염불과 좌선 그리고 보시에 의해서도 구해지는 것이다.

천상불(天上佛)이란 개념은 플라톤식 원형(原型)개념과 유사하다. 석가모니불의 원형인 천상불의 이름은 아미타불(Amitabha)이며 '무량광명(無量光明)'이란 뜻이다. 여러 천상불은 지상에 각자 한명씩의 보살과 붓다를 가진다.

초기에 원시불교의 승려들과 대승불교의 승려들은 같은 사원에서 함께 거주하며 설법했다. 당연히 각자의 교의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두 교파는 서로의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어 갔다. 서로의 차이점이 두드러져서 수용하기 어렵게되자 두 교파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길을 걷게 된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민정환 〈개포정밀화학 대표〉



"5명 거사모임 지금은 가족법회로"

매주 사찰찾아 마음비우니 사업 자신감 생겨

직장생활을 착실히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업가가 되었다. 막상 내 일이라고 시작하고 보니 어려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판로 확보하랴 새 상품 개발하랴 동분서주 해 봐도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심정과 경제적인 압박만 심해져 갔다.

일은 꼬여도 풀면되는 것이지만 사업의 현장에서 피로에 지친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쉬고 싶어도 쉴 곳이 없었다.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를 풀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종교를 생각했다. 아내와 상의해서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 아내는 교회를 다닌적이 있었던 터라 쉽게 적응했는데 나는 첫날부터 '여기가 아니다'란 생각에 사로잡혔다. 교회를 포기하고 생각한 곳이 절이었다. 대대로 절에 다닌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처음부터 절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아내는 여전히 교회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런 사연으로 동네에 있는 협성사를 찾은 것이 15년전의 일이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천수경〉 읽고 좌정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들이 좋았다. 그렇게 절 다니는 일에 익숙해질 무렵 어느분이 계룡산 신원사를 가보라고 권했다. 절과 인연을 맺고난 뒤부터 마음이 편하고 사업도 잘 풀려 조금의 여유가 생기던터라 신원사 가는 일이 거북할 이유가 없었다.



어느 토요일 늦은 오후에 도착한 신원사. 왠지 포근한 기운이 나를 휘감는 것 같았다. 고향이나 어머니의 품을 연상시키는 그런 포근함이었다. 법당에서 철야기도를 했다.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자 소리없이 자신의 종교를 포기하고 남편을 따른 고마운 아내와 함께 합장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 새벽녘까지 온 마음을 다해 관음정근을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나는 관세음보살님을 볼 수 있었다. 전설같은 일이라 그다지 알리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날 기도 이후 나도 한사람의 수행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스스로 자부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신원사를 다녔다.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신원사행은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기도하는 즐거움은 삶의 즐거움이었다. 일도 잘 되고 매사에 자신도 생겼다. '일체유심조'의 도리 속에서 나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불자로서의 즐거운 생활에 만족하고 자내던 어느 아침이었다. 조간신문에 따라 들어온 안내문에 눈이 갔다. 원심선원이란 곳에서 불교기초교리도 강의하고 단전호흡으로 건강도 되찾아 준다는 내용이었다.

절에도 다니고 건강도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길을 발견하고 어떻게 가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원심선원은 고교 교사인 김종성법사님이 낸 포교당이었다. 신도도 거의 없어 운영이 되지 않아 문닫기 직전의 상황에서 김법사님이 포교의 방편으로 건강문제를 사용한 것이었다. 단전호흡을 하고 기초교리도 배우는 가운데 나는 그간의 내 수행이 그저 나의 안위만 갈구하는 신행에 불과 했음을 깨달았다.

5명의 법우들이 원심선원을 찾는 도반의 전부였다. 전생부터의 인연이 지중했던지 다섯사람 모두가 나와 같이 속 좁은 신행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화곡동 일대는 불교포교의 황무지였다. 그곳에서 불법을 전하자는 의지를 모으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법사님을 중심으로 거사림회를 키우기 시작했다. 가까운 친구들을 모으고 친척들을 불렀다.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고 석달에 한번씩 성지순례도 갔다. 처음의 다섯명이 5년이 지난 지금은 일곱배가 넘는 회원으로 늘어나 법당이 꽉차는 일요법회가 됐다. "남편들만 모여서 복받느냐"는 아내들이 늘어나 거사림회를 신도회로 고치고 가족이 다 모이는 법회로 바꿨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어린이 법회도 생기게 됐다.

이제 나는 일요법회와 법우들의 애경사를 챙기는 일로 바쁜 몸이 되었다. 그 바쁜 가운데에는 늘 생활불교의 실천자가 되자는 다짐이 함께한다.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00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부 •야간부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부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부 •통신부		
중국어과	2년	•주간부 •야간부		
불교미술과	2년	•주간부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부 •통신부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22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대전문경서적: 252-8558, 부산불교서적전시관 : 632-7393,
대구제일서점: 424-0801, 마산학문당 : 46-2925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중국 명문 한의대
고급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 수 대 학 : 남경중의약대학
대 상 : 한의사,한약사,침·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 간 : 8박9일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간염, 좌골신경통, 침치료, 비만치료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수료증 수여
인 원 : 15명 이내
출 발 일 : 1996년 8월 15일 (목)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양도합니다

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심깊고 능력있는 불자님들에게 사찰을 양도합니다.

※【1】
여주에서 2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대형버스 마당까지 진입할수 있도록 포장 완료
수련원 및 노후 복지시설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전원속에 편안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립 능력 구비
쾌적한 자연환경과 산수가 조화를 이룬 명당

현재 사법, 행정고시원 및수련원으로 -이용중
■ 부 지 : 10,344평
■ 건 축 물 : 총평수 354평
■ 위 치 : 경기도 여주읍에서 25분 거리
■ 금 액 : 7억

※【2】
서울소재
서울 도심지 소재
교통의중심지, 포교원으로 좋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창 건 : 약 10년
■ 대 지 : 90여평
■ 건 물 : 160여평(3층빌딩)
■ 금 액 : 8억

사정이 있어서 계속 사찰을 운영하기 어려운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을 연결해 드리겠읍니다.
※문의처 : 02) 233-2500
0338) 71-8210 , 011-279-4600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④

貪嗔癡愛等 八萬四千習氣毛病
탐진치애등 팔만사천습기모병
猶如金染上了 各種垢垢
유여금염상료 각종오구
乃敎爾用鏟刷 用水用布等來 洗刷垢
내교이용산용쇄 용수용포등래 세쇄탁
抹一樣
말일양
所以佛說的法 門門都是妙法
소이불설적법 문문도시묘법
都可以了生死 成佛道
도가이료생사 성불도

탐진치 갈애등 팔만사천 습기로 자란 병이 마치 금덩이에 각종 더러운 때를 입힌 것이라
이에 깍고 닦고 물이나 헝겁등으로 씻고 닦고 비벼서 제모습으로 가르친 것이다.
그러기에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문마다 모두 묘법이요
모두가 생사를 해결해 성불하는 길인 것이다.

只有當機不當機的問題
지유당기부당기적문제
自佛拈花 至達摩祖師 傳來東土以後
자불염화 지달마조사 전래동토이후
下手功夫 屢有變遷
하수공부 루유변천

종문은 참선을 주로 한다. 참선이란 마음을 밝혀 참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는 자기의 본래면목을 참구하여 뚫는 것을 요하나니
이른바 제 마음을 밝게 깨닫고 본성을 투철히 본다는 이 법문은
부처님의 염화시중에서부터 달마조사가 동쪽으로 전법한 이후에 이르기까지 손을 댄 공부방법이 여러변 변천했다.

在唐宋以前的善德
재당송이전적선덕
多是由一言半句 就悟道了
다시유일언반구 취오도료
師徒間的傳受 不過以心印心
사도간적전수 불과이심인심
并沒有什麼實法
병몰유십마실법
平日參禪問答 也不過隨方解縛
평일참문수답 야불과수방해박
因病予藥而已
인병여약이기

당·송 이전의 선지식들은
한마디 말이나 게송 반귀절에도 도를 깨달은 경우가 많았다.
사제간에 법문 전수하는데도 마음으로써 마음을 인가하는데 그쳤으니
(따로) 어떤 실다운 법이 있음을 인정치 않았다.
평소에 묻고 대답하고 경우에 따라 때로는 풀어주고 때로는 묶는데 불과했으니 병을 보아 약을 줄 뿐이었다.

宋代以後 人們的根器陋劣了
송대이후 인문적근기루열자
講了做不到
강료주부도
譬如說 放下一切 善惡莫思
비여설 방하일체 선악막사
但總是放不下 不是思善 就是思惡
단총시방불하 부시사선 취시사악

송대 이후에 사람들의 근기가 하열하여 가르쳐도 이루지 못했다.
비유컨대 일체를 놓아라, 선도 악도 사량하지 말라 말해주어도 모든 것을 놓지 않고 선은 생각치 않으며 악을 생각하는 것과 같았다.

龍眼

팔만사천법문은 생사 해결하는 묘법
근기따라 한 문에 깊이들면 참성품 봐

不必强分 法門高下
불필강분 법문고하
流傳中國最普通的法門 爲宗教律淨密
유전중국최보통적법문 위종교율정밀
這五種法門 隨各人的 根性和興趣
저오종법문 수각인적 근성화흥취
任行一門都可以
임행일문도가이
總在一門深入 歷久不變 就可以成就
총재일문심입 력구불변 취가이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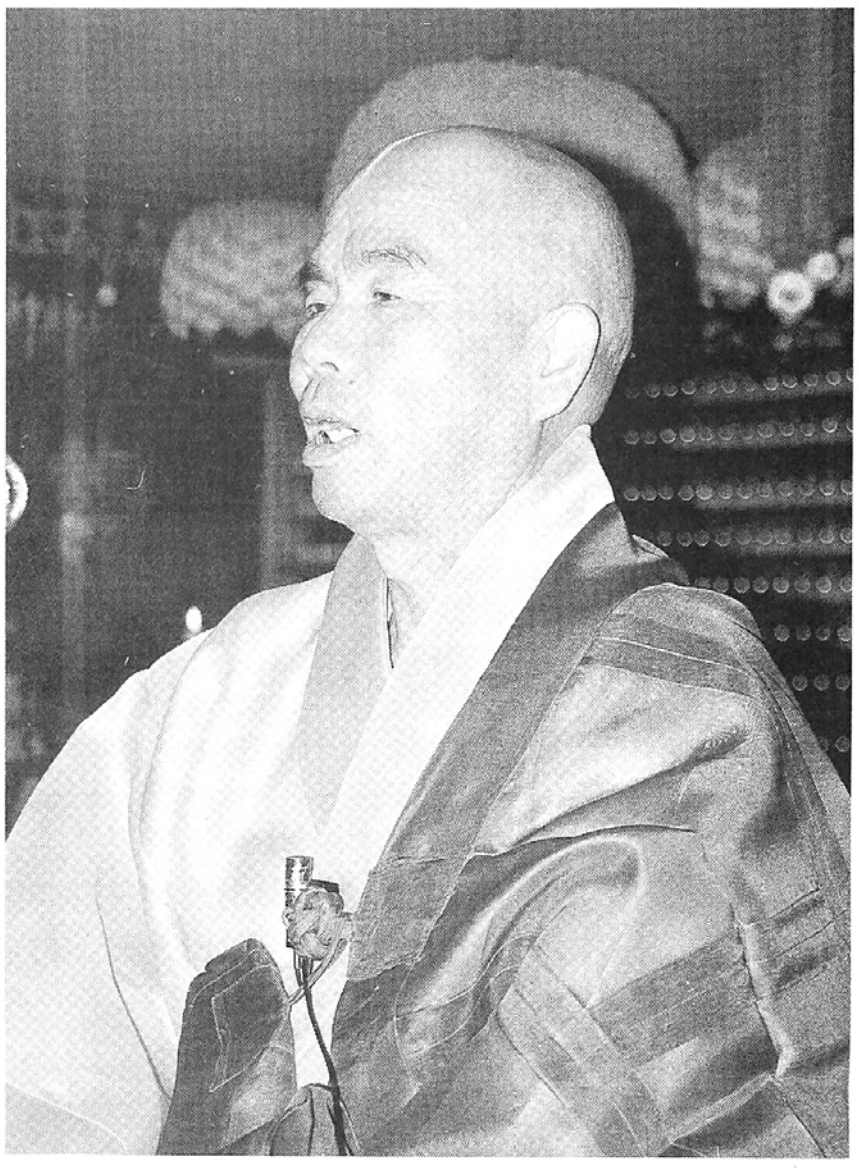
다만 근기에 적당한가 부적당한가 하는 문제이니 구태여 법문의 높고 낮음을 분별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 전래된 보통적법문은 종·교·율·정토·밀교이다.
이 5종의 법문은 각자의 근기와 성품에 따라 고루 어우러지는 바,
한가지 문만 따라 수행해도 다 가한 일이다.
모두다 한 문에 깊이 들어 오래도록 변치 않으면 가히 성취할 수 있다.

宗門主參禪 參禪在 明心見性
종문주참선 참선재 명심견성
就是要參透 自己的本來面目
취시요참투 자기적본래면목
所謂明悟自心 徹見本性 這個法門
소위명오자심 철견본성 저개법문
인병여약이기

"실천없는 골백번 서원보다

지상법석

월성스님 〈정중선원 선원장〉



약력
- 1934년 보은 生
- 53년 해인사로 출가
- 백양사, 통도사, 해인사, 봉암사 등 선원서 정진
- 서울 영등포와 경기도 송탄의 성관사 주지역임
- 現 전북 장수에서 성관사 중창 불사 진행

약인욕료지 若人欲了知
삼세일체불 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 應觀法界性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절에 다닌다는 사람치고 이 말을 안들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 모두가 마음의 지은바임을 알라는 〈화엄경〉의 요지인데 이 이상 명확한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짓고 마음이 허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자리에서 세상이 생기고 멸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부처가 되고 마음을 잘못 쓰면 악귀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하는 것이 모두 이 마음자리 밝히는 일로 귀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잘못 쓰는 일에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넘어가지 않는 것 보다 쉽다는 게지요. 청정심을 내야 할 것인데 삼독심이 더 빨리 나와 버리거든요. 그렇거든 얼른 삼독심을 뒤로 제쳐 버리고 청정심을 내야 하는데 그냥 삼독심에 빠져 그걸 제쳐낼 용기를 못 내는 겁니다. 수행이 안된 탓이고 근기가 약한 탓이라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근기에 맞는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마음을

"내 마음 한번 죄 하나의 지옥짓고 한번 청정심 내면 하나의 극락이루니 지옥과 극락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관하는 수행을 쌓으며 근기를 높히고 스스로 청정법신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삼독심은 탐(貪) 진(瞋) 치(癡)를 말하는데 이것을 세가지 악의 불이라는 뜻에서 삼화(三火)라고도 합니다. 또 이 세가지 마음은 중생을 악업의 구렁텅이로 몰고가는 근원이 되므로 삼불선근(三不善根)이라고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탐내는 마음과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포악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세가지의 불만 꺼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서로 나눠 갖고 화합하고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것이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두고 나의 것이라고 큰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든 그 몇푼의 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걸 주고 뭘 하나 사버리면 그 돈은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산 물건 역시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물건은 그만 두고라도 지금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육신인들 여러분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 나의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바로 그놈이 내것입니다.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청정심과 삼독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분별하고 사량하며 그래도 본래진면목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복잡한 마음의 실체가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을 찾아 그것 이외의 것은 무엇도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 보자고 이렇게 법회도 열고 설법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탐을 내거든요. 탐심이 기승을 부리면 그것을 억누르고 제어 하기 보다는 그냥 그 놈의 탐심이 부려대는 기승에 끄달려 가고 마니까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진심과 치심을 누르지 못한 결과가 이 세상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불자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어지럽다 난장판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우리도 그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극락세계라고 말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이야말로 극락세계여서 사람이 사람을 믿고 아끼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불자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극락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참다운 극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삼독심의 불길을 끄는데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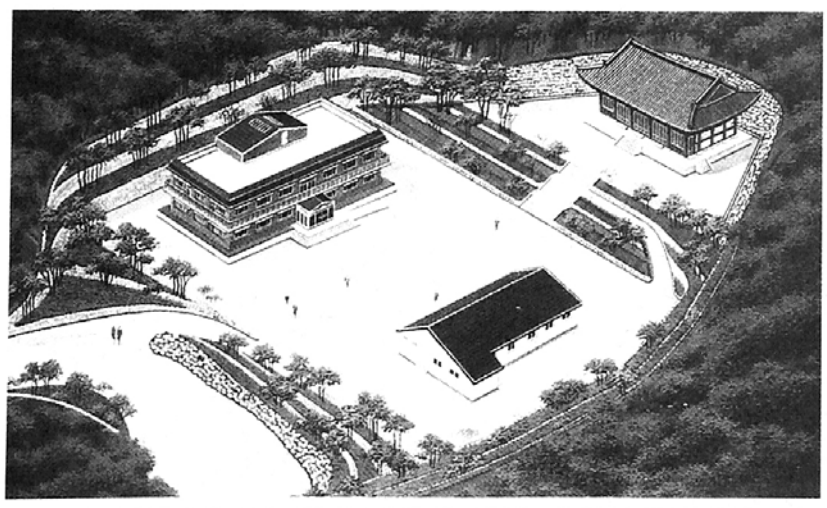
사람의 한 평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다고 말하는 것은 더 긴 시간에 비해 짧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짧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에 비하면 인간의 평균수명은 얼마나 긴 것입니까. 인생의 길고 짧음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일생동안 무척이나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미래의 내 모습과 인연을 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과정은 온전히 후생의 나를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사소한 행동도 후생의 어떤 인연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가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다보사

다보수련원 개원 안내

◆ 多寶修練院 준공법회 및 고 장경호 거사 흉상 제막식 ◆



귀의삼보하옵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청정수련도량 多寶寺 多寶修練院의 건립공사를 마치고 준공법회 및 고 장경호거사 흉상 제막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 돈 각

일시: 불기 2540년 7월 20일(토) 오전11시
장소: 다보사 다보수련원

■ 당일 아침 7시 정각에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빌딩(불교방송) 앞에서 관광버스가 출발합니다. 동참하실 불자님은 7월 15일까지 연락하여 주시면 좌석을 지정하여 드립니다. (연락처/02-719-1855)

財團法人 大韓佛教振興院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TEL/02-719-1855, 6 FAX/02-719-5052 ■ **다보수련원**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 17-1 TEL/0445-33-7789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다보수련원 개원 기념 '96 여름수련회

다보수련원의 개원을 기념하여 모든 불자들이 스스로 청정해지겠다는 서원을 통해 지계와 보시의 실천지침을 생활화함으로써 새로운 신행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전개되고 있는 "청정운동-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96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구 분	기 간	모집인원	신청마감	대 상	동참금
지도자수련회	8. 5~8. 7	70명	7. 25 (목)	신행단체지도자	본원부담
1차 수련회	8. 12~8. 14	70명	8. 2 (금)	성인 누구나	오만원
2차 수련회	8. 19~8. 21	70명	8. 9 (금)	성인 누구나	오만원

◆ 초빙강사
이기영 박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한 나의 제언"
권기종 박사(동국대 교수) ····· "대승 불교의 요체"
김정빈 선생(소설 '단' 작가) ····· "부처님 당시 수행법의 실제"

◆ 준비물
1. 필기구 2. 세면도구 3. 운동복 4. 동참금

◆ 참가신청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02-719-1855, 괴산 다보수련원 0445-33-7789

다보수련원 이용안내
불교신행단체의 이용뿐만아니라 불자가정과 일반인에게도 항시 열려 있습니다. 이용 15일 전까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기는 30일전)

지상법석

동전하나 보시가 공덕”

“나의 주인을 찾는 것외에 그무엇도 나의 것이 아님을 알려는것이 수행입니다”

침은 불교가 아니면 생각조차 못할 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무서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살아가며 죄를 지을 수가 없겠지요. 죄를 짓기는커녕 죄를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인연과 연기법을 믿는 불자들이 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치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삼독심이 아무리 발광을 하고 기승을 부려도 능히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이유 또한 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 한번의 죄를 일으키면 하나의 지옥을 지은 것이니 그 업보를 감당키 쉽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서 한번의 청정심을 냈다면 하나의 극락을 이룬 것이니 그 공덕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생에서 좋은 소식, 진리의 법담을 많이 들었으되 그냥 듣는 것에서 멈춰 버린 사람들은 귀만 모여 무엇을 들으려 허둥대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듣는 것은 즐겼는데 그 들은 바를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으니 무엇에 쓸 것입니까. 듣는 순간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며 진리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절 저 암자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러 열심으로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우매한 중생심에 진리의 법등 하나 밝혀 보고자 하는 그 염원이 갸륵하기 그지 없으되 법문 듣는 즐거움만 탐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가 잠시 즐거웠을 뿐 마음자리를 환히 열지는 못한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 역시 탐심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구족시키는 일에 마음을 쓰도록 합시다. 내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로 보이겠습니까. 나라에서도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법대로 말씀드리면 미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미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현재의 역사를 바로 지어내는 일이지요. 역사를 운운할 자리가 아니니 이만 줄이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눈을 맑히고 나의 입을 깨끗이 하고 나의 귀와 코와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지 않으면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일체 만물이 흐트러지고 뒤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부터 해탈의 길은 닦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한 인간으로, 법계에 충만한 진리의 전파를 휘감은 법신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못깨달은 부처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말이야 하기가 쉬워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몇천겁의 생을 거듭하여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중생심을 버리고 보살심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백번 천번 외친들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오늘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굶주린 이웃을 위해 동전하나 보시하는 행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삼독심에 끄달려 청정심은 잔뜩 먹구름으로 가리워졌지만 그 먹구름은 영원한 먹구름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바람은 자비심이요 보살심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옹기종기 생겨난 중생 모두가 한 가족이니 다투고 탐내고 헐뜯을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생각해 주고 아껴주며 이 세상이 극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삼독심 보다 청정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해 그 법을 실천하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을때 이미 이 세상

실행없이 진리 말하고 듣기만 탐하면 업연늘어

“지금 살아가는과정 후세를 조각하고 다듬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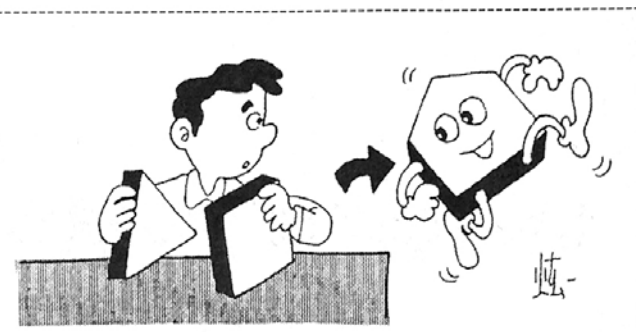
렇게 지옥과 극락을 짓고 허물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업이되고 후생의 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생에서 말하기 좋아하고 진리를 입에 담기를 즐기되 실행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 입만 모여 와글거리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곳에 갈 사람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수박 겉을 핥아 먹듯 몇줄 공부하고 마치 큰 도를 이룬양 떠들고 다니며 ‘이것이 최상의 진리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수행은 승속을 구별않고 해야할 것이지만 그 무게를 가벼히 여기고 함부로 ‘닦았노라’ 하서는 안되는 겁니다. 진정 깨달음을 이룬자는 입을 다무는 법입니다. 옛 선사님들도 깨달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법열을 몇줄의 오도송으로 간추려 터트리고는 입을 다물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보임의 시간을 즐기고 깨달음이 익고 익었을때 비로서 제자들을 모아 진리의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쉽게 오르고 너무 쉽게 도를 넘은듯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행이 있을 수 있나요. 실행은 없고 말만 있는 진리였으니 그 과보를 ‘입의 동산’에서 받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근이 느끼는 모든 것은 마음자리를 열어 젖히고 청정법신을 이루는데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를 위해 삼독심을 물리치는 수행력이 필요한 것이고 마땅히 진리를 실천하는 행업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은 오직 깨달음을 얻은 자만의 것입니다. 부처의 자리에 든 사람 이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오감이 느끼는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법계의 중생은 모두가 여여히 구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눈이 맑지 못하여 그 구족됨을 알지 못합니다. 불완전 투성이입니다. 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부터 완전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구족함이 덜된 줄은 모르고 완전한것 잘된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사더란 얘기입니다. 앞에서 탐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것이니 업연만 늘려 놓은 셈입니다. 진리의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에 몸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몸뚱아리가 번뇌의 주머니를 면해서 청정법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수행의 도반들이고
내 나라는 커다란 절입니다
게으름으로 어리석음 짓지말고
수행자로서 자리를 지킵시다”

는 왜 완전한 것을 구하려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한 탓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면서 그걸 인정해 버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중생임을 알면서 중생의 탈을 벗어 던지고 대해탈의 춤사위를 놀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생으로 머물러 있으며 중생고를 받아 들이며 중생다운 삶을 이어갈 뿐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문제의식이 필요 합니다. ‘왜 이런가’를 묻고 되묻는 진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은 극락의 문을 반쯤 열어둔 것이라 믿어야 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행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내 이웃은 수행의 도반들이고 내 나라는 커다란 절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도량에서 우리는 게으름을 모르는 수행자로 서로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리석음에 빠지지말고 근기와 인연에 맞는 수행을 해야하고 좋은 스승을 찾아 나서 훌륭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76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⑬

불생불멸과 물리학

질량 - 에너지 변환 기본물리량 변함없어

심경의 불생불멸 ‘보존의 법칙’과 같아

심경은 공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하기를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고 한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겉으로는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는 뜻의 불생불멸이야말로 물질세계에 관한한 핵심을 찌른 말이다. 고전물리학이건 현대물리학이건 가릴 것없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보존의 법칙이다. 이 보존의 법칙이 말하는 바가 바로 에너지, 전기량(電氣量)등 기본적인 물리량은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질량-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겠다.

물체가 움직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운동에너지가 따른다. 또한 지구상의 물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면 거기에는 위치에너지가 따른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면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에너지의 모양이 바뀔 뿐 에너지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이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에너지로 변하고 이 전기에너지로부터 사람들은 필요에따라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 또는 운동에너지를 끌어 쓰는데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쓰던 에너지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 에너지는 또한 질량으로 변하기도 하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기도 한다.

질량과 에너지의 상호변환은 반야심경이 말하는 불생불멸을 물질세계에서 이해하는데 더 없이 좋은 예이다. 자연계에는 어딘가에서 갑자기 질량이 생겨나기도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는데 질량-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 없어진 것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불쑥 질량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질량이 없는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잠재해 있던 에너지가 질량의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질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질량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자연현상이 여러가지 형태로 바뀌는 것은 결국 에너지가 이 모습에서 저 모습으로 바뀐 것을 뜻하는 것이다. 나무를 태워 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다만 물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소와 산소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이 생겨난 것도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소도 없어지고 산소도 없어졌으며 물이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없어진 것이 없다. 타기전에는 산소분자와 수소분자가 서로 따로 따로 놀았던 것이며 타고난 후에는 수소분자와 산소분자가 서로 결합한 것 뿐이다. 산소-수소가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결합한 것을 사람이 물이라고 부를 뿐이다. 비유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다. 결혼전 한남자와 한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없어지고 한 가정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꼭 같다. 모든 변화가 다 이런 식이다.

살아 움직이던 생물체가 죽어서 그 몸이 썩어 없어진 경우에도 원자(原子)의 세계에서 보면 변한 것이 없다. 단지 원자들 상호간의 결합상태가 바뀐것이다. 물질이 생겨났다 썩어 없어지는 것은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과 꼭 같다. 어떤 모임이 있어 사람이 100명쯤 모였다면 100이라는 숫자의 사람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없어지고 100명이 모인 어떤 모임이 생겨난 것이다. 이 모임을 사람들이 물질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임이 해체되면 물질이 없어진 것이지만 모임을 구성했던 100이라는 숫자의 사람이 어디 다른 곳에 갔을 뿐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물질이 생겼나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물질세계의 윤회를 뜻할뿐이다.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고 저렇게 모였다 다시 흩어지고 새롭게 모일 뿐 무엇이 없어진 것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보존의 법칙이다. 결국 보존의법칙은 불생불멸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불생불멸! 그것은 물리학의 기본법칙이다.

〈이화여대 교수 · 물리학과〉

집집마다 「불자의 집」, 차량마다 「우리는 불자」 명판을 붙입시다

◆7도 칼라로 제작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떳떳한 불자, 긍지있는 불자가 됩시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극락정토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것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불자의 집」 명판 붙이기 운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한 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한 이 운동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크기 6cm×7.5cm



■크기 3.5cm×10.5cm

※ 차량 부착시는 「불자의 집」 글씨 대신 「우리는 불자」가 들어갑니다.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차량에 부착해도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4. 차량용(유리후면부착)으로 좋습니다

보급방법 사찰, 단체에 보급합니다.

크 기 3.5cm×10.5cm, 6cm×7.5cm

보 급 가 1개당 1,000원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고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84

스승 담인

무릇 일어남은 그 목표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힘이 넘치다가도 어느덧 그 힘이 줄어들어 없어짐으로 돌아가는 바가 세상인가.

그런 세상을 벗어나고자 함이 열반인가.

인담 우녀와 함께 새로 섬의 식구가 된 소석은 아직도 파도더미에 파묻히며 사경을 헤매던 그 벅찬 표류의 악몽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겉으로는 태연한 인담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그 어둠속의 파도더미에 떠내려 갔다가 섬 기슭의 바위를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어떤 종잡을 수 없는 의지에 의한 은혜였는지 모른다.

소석으로서는 파도더미 속에서 이미 짠물을 삼킨 나머지 절반쯤의 의식을 내버린채 인담에 안겨있었다. 기억이 남아있었으나 그것이 꿈인지 생시의 일인지도 어렴풋하였다.

하지만 인담으로서야 함께 오게된 남자를 살릴 생각 밖에는 없는 그 사경을 벗어나 가까스로 섬 기슭의 바위 끝이 손에 잡힌 것이 어떤 영문인지도 모를만큼 다행일 따름이었다.

"말로는 생사를 돈구름 일다 스러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사의 경계가 험할 줄이야…그러므로 생사를 말하는 일은 정작 한가한 노릇이기도 하겠지…장차 내 입에서 함부로 생이다 사다 하고 내뱉을 일이 아니로고…."

하지만 두사람이 파도더미에 덮치며 섬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그 어둠 속으로 나와 있던 우녀가 그들을 위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의 명호를 불러댄 사실이야 우녀의 입으로 밝혀지지 않는 바에야 누가 알기나 하겠는가.

우녀는 낭자가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무욕도의 시절을 마감하는 예감을 지우는 계기로 삼았다.

"… 이 도량이 더 이어져야 할 모양인가. 저런 숫된 사람 하나가 보태질 바에는 우리도 이곳 인연을 더 이어가야 하겠지. 그런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물리칠 노릇도 아니겠지…바다는…섬은…섬의 이 파도소리는 바다의 보살인 관세음보살이 파도소리를 듣다가 듣다가 듣는 귀대신 이번에는 눈으로 보는 경지에서 저런 낭자를 보내 주시었겠지…."

이런 생각을 마치 옆사람에게라도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던 우녀의 입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왜냐하면 그는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막 일기 시작하는 거친 바람 속의 어떤 위난을 떠올렸을 때가 바로 인담과 낭자가 무욕도 부근의 바다에서 표류 중이었던 때였고 그래서 입에서 절로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날밤 이후로 점점 불보살의 명호를 불러대는 삼매(三昧) 자체가 그의 간화선(看話禪)과 하나도 다를것이 없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였다.

이를테면 그는 인담들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뜻과 함께 그의 염불선(念佛禪)이 식(六識)을 불러일으켜 6경(六境)인 색·성·향·미·촉·법을 낳아 그것에 한없이 끌려가며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유혹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 유혹의 강한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

바로 이 지배를 거부하여 그것을 꽁꽁 묶어둔다면 처음에는 마구 바둥거리다가 차츰 그 힘이 빠져서 지쳐버린다. 지친 나머지 없어진다.

이 과정이 수행일진대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으로 고정되어서는 안된다. 중생 각자의 처지에서 얼마든지 수행의 방법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고 소경이 님을 보고 문둥이가 찬란한 미인과 함께 있게 되는지 모른다.

어찌 선이 화두 하나에만 그치겠는가. 어찌 선이 수행자에게만 사람에게만 있겠는가. 살람대는 바람이 일면 그 바람이 선이고 사나운 파도가 가라앉던지 가라앉던 파도가 사나워지든지 하는 일이 선이 아닐 수 없다.

그 바람소리와 파도소리가 곧 염불선이라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욕지거리도 선이다.

그런 바에야 이왕지사 불보살의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불러 나를 여의고 내가 부르는 대상조차 여의고 난다면 거기에 6조 혜능과 마조(馬祖)는 물론이거니와 조주(趙州)의 개 짖는 소리도 부처의 눈부신 형상이 솟아나는 보살의 천탄이 아니겠는가.

"부르리라, 당신 없어질 때까지!"

라는 우녀의 다짐은 사뭇 비장한 것이었다. 아니 그는 새로 온 낭자 소석에게도 염불선을 옮겨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소석에게 다그치듯이 말하였다.

"그대는 우선 하루에 만번쯤 관세음보살을 불러라…그러기를 석달열흘 지속하여라."

인담과의 의논없이 우녀가 명령한 이 염불은 4분정진 따위로 하루 네번씩 나누어 하지 않고 밥 지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바다의 먼 데를 바라볼 때나 멈추지않게 하였다.

무욕도량에 또하나의 선수행 염불선이 뒤늦게 시작된 것인가 우녀는 새로 온 낭자 소석에게도 염불선을 일러주었다 "나무관세음보살…"



"스승이시여 보일 공부가 없나이다" 인담은 꿈속에서…

그렇게 되자 소석은 잠자리에서도 잠꼬대를 "나무 관세음보살…"로 하게 되었다. 그런 잠꼬대를 잠결에 듣게된 우녀는 소석을 무척이나 어여삐 여겼다.

"이 무욕도의 등불이 사위어가다가 다시 환히 빛나기 시작하누나."

라고 잠에서 깨어난 눈에 굉그르르 눈물이 고여 아주 작은 눈 안의 호수를 이루고 있었다.

먼동이 튼 뒤였던가, 먼동 빛에 드러난 소석의 잠든 얼굴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은 황량한 사내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욕정의 대상이거니와 삼엄한 정신의 사람에게는 숨이 막혀 버리는 정신과 정신 사이의 서슬 퍼런 대결이기도 한 것이었다.

우녀와 소석의 이같은 수행 때문인지 차라리 인담은 두 여자 밖에서 외딴 집처럼 되어 혼자로 자적(自適)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임춘도 넘겨주었고 함께 사는 우녀까지도 새로 온 소석에게 넘겨주었다. 이제야 나는 나혼자 흘짝 짖도록 비를 맞을 수 있겠구나."

돌이켜 보건대 그는 우녀도 이곳에 데려왔고 소석도 이곳에 데려왔다. 조류가 사납고 섬 주위에 암초가 많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섬이었는데 언젠가 이 일대의 해안에 되놈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 섬에 한두번 사람이 건너온 일 밖에 없었는데 그런 빈 섬에 인담은 발을 디딘이래 하나하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세상의 어느 도량과도 상관없는 도량, 이 세상의 어느 가풍(家風)과도 상관없는 도량을 만들어 바야흐로 우주의 여기저기를 왕래하는 도반들은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첫 도반과 나중의 도반을 두어 그들로하여금 공부를 하도록 내버려둔 인담은 실로 오랫만의 꿈속에서 그의 고려시절의 스승 담인을 보았다.

스승은 지난날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열엿새나 열이렛날 밤의 달처럼 둥글었으나 이번 꿈에 본 스승의 모습은 무척 초췌한 것이었다.

현실에서는 조선후기에 고려중기의 사람과 서로 만날 수 없지만 꿈의 세계에서는 고려와 조선 따위의 시대 차이 따위는 없마나 치졸한 일인가. 그는 스승의 모습 앞에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스승 담인은 제자 인담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위로 균여(均如)나 의천(義天)도 싫고 장차 을 나옹(懶翁)도 보우(普愚)도 싫다…나에게 스승이란 오직 천축의 석씨(釋氏) 한 분일 따름이다가 그것도 귀찮은 짐이 되어 내던져버렸다. 하물며 가섭이나 달마 신수와 혜능 따위야 도무지 검불이었다. 그런 검불이야 털어내야 하였다…이니 나에게는 쥐 한 마리가 수만마리 새끼를 퍼질러 낳는 것처럼 상좌를 많이 두어 이 작은 땅의 사찰과 암자 그리고 여러 단월(檀越)들을 다 차지하는 중이야말로 불법의 역적이고 도적이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상좌 한놈 두지 않고 내 머리도 내 손으로 삭도질하여 깎아온 것이다…그런데 그대가 더 오래 뒤에 나와서 내 제자가 된 기연(奇緣)이야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스승님이시여."

"그래 그동안 공부한 것좀 내놔 보아라. 7월 대추인지 8월 대추인지 어디 이리저리 살펴보고 싶구나…."

"스승님이시여. 보일 공부가 없나이다."

그때였다. 스승 담인의 눈에서 번쩍 파란 불빛이 났다.

"그래야지! 어디 공부가 내노라면 내놓을 공부이겠느냐."

"스승님이시여."

"너는 그저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란 말이냐."

"스승님이시여."

"허허허…이렇게 독 안에 정성이 가득 담긴 놈도 이 세상에 있단 말이구나…됐다. 내가 너를 알았으니 이제 내 할 일이 있어 떠나야겠다. 자 저쪽의 지광이를 좀 갖다다오."

그때 인담이 스승의 곁에 기대어둔 지광이가 쓰러져있는 것을 주워서 드리려는 데 이미 스승의 모습은 사라졌다.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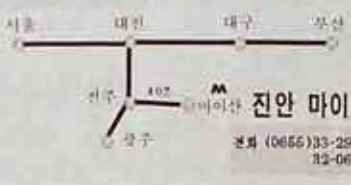
하고 인담이 놀라는 찰나에 그 스승을 맞이한 꿈은 깨어버렸다.

그러나 인담은 꿈이 깨인 그대로 꼼짝하지 않은채 그대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수미산이 첩첩하구나."

그림 · 조향숙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 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33-2900,0303
팩스 82-0652.0072

심산유곡 山蔘
佛心의 香氣로 그윽한 한 佛子가 山蔘을 캤습니다. 因緣을 맺어드리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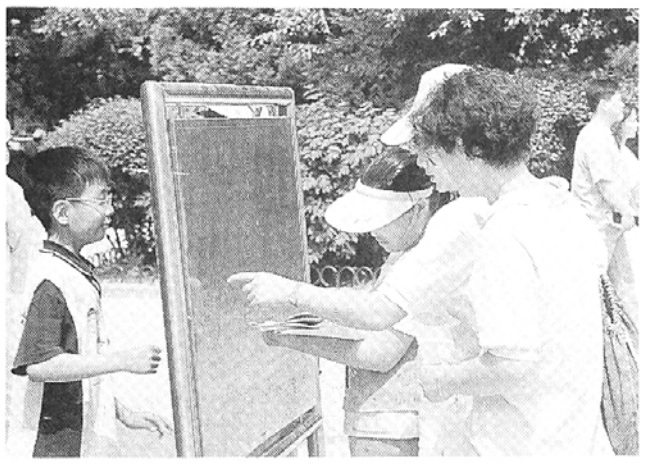
☎ (0416)841-6576
山僧合掌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방법
선종어록한문의 해석법을 새롭게 배운다!
『무문관』에 대한 정밀한 분석!
선종어록 해석을 위한 한문법의 체계적 정리!
'96 불교서적 종합목록이 나왔습니다. 가까운 불교서점이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종은 당·송시대에 그 황금기를 맞이한다. 따라서 선어록 대부분이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곧 일반적 언어 즉 구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선어록을 해석함에 있어 문어체에 의지한 현대적 해석은 그 타당성을 잃는다. 철저히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한 구어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부응한다.
秋月龍珉 • 秋月眞人 著/慧 訓 譯/신국판 양장/값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어린이 불교문화교실 '봇물'

여름방학

전통문화·불교공부로 심성교화



◇ 유명고찰이나 유서깊은 문화유적지를 찾아 어머니와 함께 현장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부루나포교원 **참선·미술·서예·다도등 프로다채**

법동 복지관 **엄마와 함께 만드는 생활도예 '눈길'**

길음 복지관 **'통큰어린이 캠프'로 적극성 훈련**

오는 16일 초등학교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계의 각 사찰과 복지관이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문화교실을 기획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계의 각 단체들이 이와같이 매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찰에서 진행되는 불교문화교실은 부처님의 법열이 오롯이 살아숨쉬는 도량에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습득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어 포교에도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 부루나 포교원(원장 선일)은 오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불교문화교실을 개설한다. 이번 불교문화교실은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불교적 소양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부루나포교원의 여름불교문화교실은 먼저 즐겁고 신나는 여름방학을 위해 구기운동하며 함께놀기, 요리실습, 단소배우기가 진행되며 참선, 미술, 불교이야기, 서예, 다도 등이 진행된다.

지역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부루나포교원 불교문화교실의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기간중 야외학습과 수영, 수련대회도 개최된다.

대전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종실)은 우리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화교실을 연다.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불교문화교실은 오는 23일부터 1박2일간 펼쳐지는 '여름캠프'를 비롯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5주간 열리는 '엄마와 함께 만드는 생활도예'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영어교실' 등 3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유아기때부터 우리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자라는 취지로 마련되는 '엄마와 함께하는 생활도예'는 8세~9세이하의 어린이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도 유익한 방학을 위한 여름방학문화교실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2일까지 펼쳐지는 '통큰 어린이 캠프'는 뗏목타기, 정글탐험 등의 적극성훈련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황극, 역할극등의 자기표현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문화유적지와 박물관, 과학관을 직접 답사하는 현장학습위주로 진행되는 특강프로그램은 복지관측이 가장 자신있게 내놓는 프로그램. 18일 우정박물관, 남산식물원, 자연탐구학습관 24일 국립 서울과학관, 8월7일 농업박물관과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14일 전쟁기념관 견학.

이밖에도 인형극교실, 과학교실, 길음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교실이 방학기간내내 이어진다.

이처럼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심성계발을 위해 마련되는 문화교실은 전국의 각 사찰과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 지도자들은 "교계에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신심증장을 위해 마련되는 문화교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사찰과 단체에서 이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가장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어린이 포교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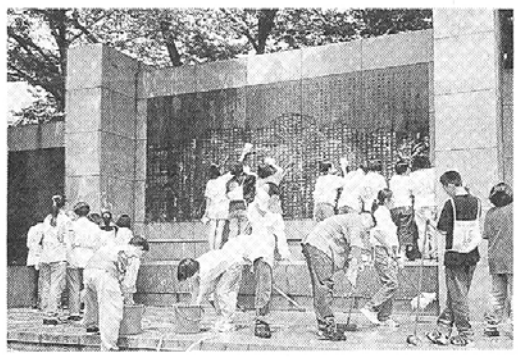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봉사의 기쁨 체험하세요"

방학이용 청소년 자원봉사 '활기'

◇초·중·고학생 1백60여명은 6월16일 서울 탑골공원 일대에서 깨끗한 환경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거리청소·노인방문등 필요한곳 어디든지
종생부 점수가산등 교육정책도 한몫

서울 덕산중 1년 박민혜양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찾았다. 학교친구 30여명과 함께 제대로 읽을 수 없을 만큼 더러워진 독립선언 비문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여동안 법우들과 함께 땀흘려 청소한 뒤 걸리서도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난 비문을 보고 봉사의 기쁨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원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나선 박양처럼 최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 불자들의 봉사활동이 점점 다양해지고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교계에서는 일부 청소년단체가 산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으나 올해에는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산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각 사찰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자선·위문·구호·환경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종합생활기록부에 점수로 기록되는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처럼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하다. 거리청소, 우체국 일손돕기, 공공기관 일손돕기 등에서부터 사랑의 편지쓰기, 독거노인 방문하여 말벗되어드리기, 수화배우기 등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웃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한편 시설관계자들은 "우리 주위에는 중고생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교사나 관계자들의 세심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되는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각 종단과 사찰에서 8월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근〉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악의 장 *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곳에
이르리라

이 향 원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 종교학	원전강독 I
연구과정	2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건강백세 ⑯



양한방 병행치료 효과
감기조심 안정 취해야

뇌 (뇌졸증-②)

중풍 증상관련 응급조치시에 주의할 일은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위험한 부위를 다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특히 CT, MRI 등을 통해 원인이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투약이나 치료는 위험하다. 신효한 약효로 각 가정마다 한두개씩 상비하고 있는 우황청심원 등은 처방규격에 맞는 양질품을 준비해야 하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 1~2환 복용시켜 효험을 볼 수도 있다. 추가복용은 진단이 나온 후에 여부에 고려하는 것이 좋다. 원인에 따라서 해로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혼수상태의 환자에게 청심원 등을 강제로 투약시키다 약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흡인성폐렴을 일으키는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민간요법은 일단 원인이 진단되고 응급조치가 끝난 후 후유증을 치료하거나 최소화 시키려할 경우에 적절히 응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한방을 병행하여 치료할 경우 더 나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 상호보완하는 협진체제를 갖춘 대형의료기관들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증상과 치료 주요증상은 의식불명 등 혼수나, 반신불수 안면마비 언어장애를 보이는 운동신경장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 같은 지각장애가 있어 각 증상의 치료가 정도와 발생부위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일단 뇌혈관사고로 인한 경우는 안정, 혈압강하, 지혈, 해열청혈이 우선된 후 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다른 중요한 것은 중풍이 일과성으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연속적으로 재발생되는 재중풍이 올 수 있으므로 충격을 절대 피해야 하고 혈압강하와 감기 등 외사의 침입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뇌출혈 뇌출혈은 극히 위험하며 사망할 확률이 높다. 응급시 머리를 철저하게 조심시키는 것도 뇌출혈일 경우를 대비함이다. 뇌지주막하(腦蜘蛛膜下) 출혈은 치명적이며 출혈반이 생겨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대다수 의식을 완전 또는 약간 잃게 된다.

그러나 소성(蘇醒)했을 경우 인체의 자정능력에 의해 후유증은 차츰 회복될 확률이 높다. 출혈반만 차츰 해소되어가면 장애받는 부분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처음 무의식상태에서는 생명유지에 방해가 되는 질식, 고열, 염증 등의 확산을 대증적으로 막아주면서 회복을 기다린다. 일단 고비를 넘긴 후에 혈압을 안정시키면서 출혈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한방에서는 증세에따라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이나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같은 해열청혈(解熱淸血)하는 처방을 사용하기도 한다. 침구치료도 병행하면 치료율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자식 잃고 만난 불법 ⑭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특별상〉

"모든것이 내탓이요 전생에 진빚 갚았지…"
진리의 법 대하니 통쾌하고 후련하였다

"바로 이거다"하는 외침이 절로 나왔다. 그러고 보니 얼마나 많은 세월을 죽음에 대해 궁금해 하고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던가! 이럴때 사람이 죽어 상여가 나가면 나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고 보이지 않을때까지 하염없이 서있기도 하고 사춘기때 주위의 죽음을 보면서 또 새 개 돼지가 죽는것을 보면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철학책도 많이 읽어 보았다. 군에서 하나님도 믿어 보았지만 그 어떤것도 갈증을 해소 시키지는 못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라고만 알았던 무지한 중생이 단 몇줄에 법열에 싸여 그렇게 통쾌하고 후련하고 기쁠 수가 없었다. 아! 이거였구나. 큰스님 감사합니다. 주인공 감사해. 부처님법 만나게 하기 위해 자식으로 나투시어 처절한 아픔을 주면서까지 이 진리의 길로 이끌었구나. 아픔이 아니고 기쁨이야. 밤새워 책을 보고 큰스님 테이프도 차에 있을때는 늘 틀고 다녔다. 보고싶거나 생각나면 끝없이 관하고 그러면서 그 어렵던 법문이 하나 둘 마음으로부터 알게되고 체험도 해갔다.

98세 되신 할머님께서 살이 썩는 고통을 받으시길래 진실로 '이것은 아냐 주인공! 어서 옷을 벗고 새옷 입고 나와 이공부 하게 해야지' 하고 계속 관했더니 며칠후 꿈으로 보여주고 옷을 벗게한 일. 직원과 함께 차를 몰고 출장갔다 오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것을 피하려다 내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 하는 순간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주인공! 하고 쏙 들어 갔더니 차는 다 부서졌어도 상대방 운전수나 나와 직원은 외상하나 없던 일.

또 매형께서 암에 걸려 죽기 한달전 그렇게도 아만심이 세서 그렇게 절에 나오자고 해도 말을 안듣더니 늦게 받아들여 그 아픈몸을 이끌고 관하며 선원에 나와서 법문도 듣고 큰스님 친견도 했다. 그날 따라 가고싶어 갔더니 돌아가실때 부처님 법이 최고라며 말을 못하면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천수경을 들으면서 편안히 운명하셨던 일. 지난 5년 동안 공부하면서 체험한 걸 어찌 글로 다 적을 수 있겠는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에게 배반당하고 사기 당하고 부도 맞고 사업 적자에 그러다 보니 돈이 1억이 넘게 나가 순식간에 빚쟁이가 되어 이자만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전생에 빚진 돈 갚았지하며 한 생각 돌리며 오로지 주인공이라는 반야줄을 잡고 아픈만큼 관하며 생활하니 마음은 편안했다. 연일 빚내다 이걸 막고 돌리며 생활하고 그러나 묘하게도 말일이면 대치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사업하면서 오는 숱한 경계들. 이 법 안만났으면 감당 못할 아픔과 시련들. 병이 났어도 큰 병이 났을 것이다. 아마 폐인이 되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해 큰스님과 주인공에 얼마나 회향을 했던가!

머지않아 주인공 자리에서 빚 문제도 해결 되리라 믿고 관하고 있다. 또 감사한 것은 큰스님께서 나하나 불을 켜면 주변이 다 밝아진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요지부동하던 형제및 주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공부 하는 사람도 생겼다.

언제가는 다 하리라 믿고 그것 또한 주인공에 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날 이 법 만나 열심히 하는 도반인 아내와 아이들도 법회에 꼭 참석하며 식사때 꼭 관하고 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인공을 찾으니 이 감사함을…

정말 이 공부 하니까 모든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이 글도 본디 쓸것도 없건마는 작은 밑알이나마 불씨를 지피는데 일조를 한다면 또한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처한 사람에게도 억만금을 주고 못살 부처님의 골수를 얻을 수 있는 이 공부를 통해 참 행복의 진미를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 또한 주인공의 뜻이라 주인공에 회향하며 큰스님께 회향한다.

노 윤 택
〈경기도 안양시 석수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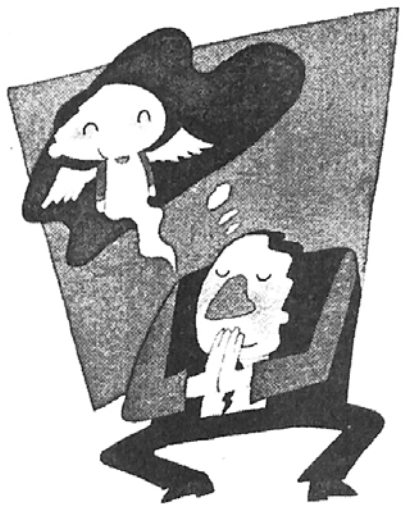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 Whosoever by words annoys either a Brahmana or a Samana when meal-time has come and does not give (him anything),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바라문이나 사문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enveloped in ignorance in this world predicts what is not (to take place), coveting a trifle,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에 싸여 사소한 재물은 턱없이 탐내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예언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reviles buddha or his disciple, be he a wandering mendicant (paribbaga) or a householder (gahattha),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㊲

깨달은 사람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 탁발하거나 재가의 제자들을 헐뜯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without being a saint (arahat) pretends to be a saint, (and is) a thief in all the worlds including that of Brahman, he is indeed the lowest outcast; (all) these who have been described by me to you are indeed called outcasts.

성자(아라한)도 아니면서 성자라고 사칭하는 사람은 전 우주의 도둑이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실은 가장 천한 사람이오.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참으로 천한 사람이오.

* predict (v) 예언하다
* covet (v) 턱없이 탐내다
* pretend (v) 사칭하다
* revile (v) 비방하다
* mendicant (ad) 탁발하는
* householder (n) 재가불자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돈 황 ㊍
이노우에 야스시 作



그림 · 심민섭

조행덕은 낙담했다. 진사 시험을 치르고자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인 개봉으로 올라 왔으나 어이 없게도 낙방을 하고 만 것이다. 개봉의 거리를 이리저리 거닐며 낙방으로 구겨진 마음을 위안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허허로운 삶의 무게가 가슴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날 조행덕은 한 골목길에서 뭔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았다. 그는 호기심과 무료를 달래보자는 심산으로 구경꾼의 틈에 끼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다. 어이없게도 사람들 가운데는 한 남자가 여자 한명을 발가벗긴채 널판지에 묶어두고 외쳐대고 있었다. "이 여자는 음탕하고 더러운 여자입니다. 어느 부위든지 원하는 곳을 잘라 팔겠으니 마음대로 사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람을 잘라 팔겠다는 사내의 태도 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분위기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널판지에 묶여 있는 여자의 당당한 표정이었다.

"내가 사겠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말이오"

사내가 보란듯이 여자의 손가락 두개를 잘라버린 직후 조행덕은 여자의 전체를 샀다. 아주 싼값이었다. 돼지고기와 같은 가격이었다. 조행덕이 "너는 자유다. 어디든 가라"고 하자 그녀는 이상한 문자가 쓰인 천 조각 하나를 주고 떠났다.

거리에서 산 여자를 놓아주자
그녀는 이상한 문자가 쓰인 천을 주었다

처음보는 문자였다. 글 공부를 즐기는 조행덕이 그 문자에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과거를 볼때 만났던 노선비를 찾아가 천조각을 보여주고 그것이 서하문자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문자를 해독하고 싶었다. 서하라는 나라, 탕구트족들이 이제 그 세력을 넓히며 주변 작은 도시국가들을 위협하는 나라에 어느새 문자가 생겨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었다. 조행덕은 송나라 사람으로서 서하에 대한 별다른 감정이 없었으나 그 문자를 보고 막연한 궁금증이 생긴 것인데 굳이 거부할 생각도 없었다.

그는 서하를 생각했고 서하로 가게됐다. 낙타를 수십마리씩 몰고 다니는 대상패거리에 끼어 서하를 향하다가 그는 서하의 군대로 잡혀들어가는 인연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곳에서 조행덕은 주왕례를 만났다. 문자를 안다는 이유로 주왕례는 조행덕을 아껴 주었다. 그리고 서하의 문자를 배울 기회를 주었다. 서하의 서울 흥경으로 가는 부대에 조행덕을 끼워 준 것이다. 조행덕은 어떤 인연이 다가올지 아무런 예감도 못하며 흥경으로 향하는 군사대열에 끼어 들었다.

필자약력

1907년 호까이도 출생. 교또대 철학과 졸업. 마이니찌신문 문예부장 출신. 한국 기행문(한국의 옛것을 찾아서)와 소설 〈암조〉 〈물구덩이 일기〉등 발표.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400면/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법구경 ① ②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피셔 지음 /손민규 옮김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환생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진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피셔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달라이 라마 -



신국판/280면/값 6,000원

태일출판사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불교비디오 '한국의 명찰' 시청각교재로 각광

"역사·문화공부로 불심 새록새록"



현대사회 정보전달의 중심체 중 하나인 불교비디오가 일반인들을 불교에 한층 가깝게 다가서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이 지난 5월 출시한 비디오 '한국의 명찰' 제1집이 각급 학교와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등에서 시청각교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영상매체를 통한 불교 포교의 가능성을 한층 밝게 한다.

'한국의 명찰'을 시청각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경남 밀양 홍제중학교 김원식교장은 "첫 상영후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불교에 전혀 관심조차 없던 학생들이 불교와 우리역사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TV와 함께 자라온 요즘 학생들에게 있어 시청각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몸소 실감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반 시청각교재들은 영어, 한문 등 학습용 비디오와 KBS, EBS 등과 같은 방송사와 독립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자연, 문화 다큐멘터리가 주류를 이뤄왔다. "한국의 명찰이 시청각 교재로 호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불교의 대 사회적 포교와 교육의 기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정동순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단장의 설명이다. 이같은 반응에 힘입어 불교TV는 '한국의 명찰' 제2집을 곧 출시할 예정이며 뒤이어 불교TV는 '내원사의 하루' '출가' '5대 적멸보궁을 찾아서' '산사의 향음'과 같은 비디오도 계속적으로 제작 출시하게 된다. 또한 지난 5월 제작해 CATV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됐던 '고려대장경'도 내년 석굴암, 불국사 등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특집시리즈로 발매될 예정이어서 시청각교재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80년대 중반이후 지금까지 '산사의 향기' '성철스님' 등 불교영상물들이 꾸준히 출시돼 왔지만 그 내용이나 기획면에서 일반인들까지 포용하기에는 비디오의 수준이 열악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명찰' 경우 단순한 사찰의 소개가 아니라 그속에 깃든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질적 향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복지시설 등서 호응 … 대 사회 포교 기여

btn '5대보궁' '출가' '고려대장경' 등 계속출시

따라서 시청각적 효과면에서 영상매체의 이점을 이용, 불교라는 소재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릴 경우 얼마든지 넓은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불교영상 시청각교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불자와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하던 활로에서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많은 일반대중에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 재미있으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것은 목탁구멍속의…'가 연극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

연극계 '스테디셀러' 우뚝

불교를 소재로 한 연극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이만희 작)가 수시로 재공연되며 각종 상을 휩쓰는 등 '연극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난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 제14회 전국연극제에서 극단 마산의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전국 연극제 단골수상
인간본질 추구 '공감대'

전국 14개 시 도대표 극단이 참가 기량을 겨룬 이번 연극제에서 충북대표 극단 청년극장도 '그것은 목탁…'을 공연 장려상을 받았으며 개인상에서도 연출상(문종근, 극단 마산)과 연기상(이승부, 극단 청년극장)을 각각 수상했다.

지난 90년 제14회 서울연극제에서 강영걸 연출로 초연된 '그것은 목탁…'은 그해 최우수상 희곡상 연기상등 주요 상을 휩쓸고 장안의 화제를 모으며 장기공연됐고 이후 미국순회공연등 여러 극단에 의해 수차례 무대에 올려졌다.

이 작품의 배경은 산사. 전직이 미대교수인 도법스님이 주인공. 불상을 만들라는 방장스님의 명을 받은 도법스님은 불상을 만드는 동안 갖가지 지난 세속일을 떠올린다. 세속에서 지내는 동안의 도했던 안했던 자신이 저질렀던 갖가지 추한 모습이 망령으로 나타나 망령과 치열한 내부싸움을 펼친다. 어느덧 불상이 완성되고 그자신은 깨달음을 얻게되고….

연극연출가 강영걸씨는 "작품이 시종 재미있는 가운데 인간의 실존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점이 공감대를 얻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붓다-꺼지지 않는 등불 장 부아슬리에 지음

사진·그림 돋보이는 포켓용 불서

화제의 책



영화에서 맛볼 수 있는 서스펜스, 문학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 예술에서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움, 저널리즘에서 취할 수 있는 사실성을 함께 갖춘 첫눈에 반할만한 아담한 책자가 나왔다. 시공디스커버리 총서 제28권 〈붓다-꺼지지 않는 등불〉이 바로 그것.

한 권의 포켓북에 꼭 필요한 글과 사진, 그림 등의 정보를 압축해 자료적인 가치도 풍부한 이 책은 붓다 시대의 인도, 보살, 깨달음과 첫번째 설법, 가르침과 유행(遊行), 반(般)열반, 가르침의 전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세한 기록과 증언을 첨부해 사료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문학박사이자 인도학 박사인 저자 장 부아슬리에는 프랑스 동양학 학교위원이자 프놈펜 박물관 큐레이터이며 앙코르유물보존위원회의 과학탐사위원으로 활동한 고고학·불교학의 권위자. 〈시공사 6천원〉

'동서양의 생명관' 특별좌담 눈길

'과학사상' 여름호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일리야 프리고진 박사의 특별좌담과 원의범 동국대명예교수의 논단 '인도철학에서 본 생명' 등을 다룬 〈과학사상〉 여름호가 나왔다.

'동서양의 생명관' 주제의 좌담에서 프리고진박사는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진화하는 공통된 조건은 시간이며, 시간은 물질의 진화적 특성의 핵심"이라고 전제, "원칙적으로 생명과 무생명 사이에 대립이란 없으며 생명은 우주의 비기계장치적 특성이 가장 멋지게 실체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양에서 자연은 기계장치이고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인식돼 왔지만 이런 이원론적 인식이 점차 사라지면서 일원론적인 동양적 자연관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의범교수는 논문을 통해 "인도철학에서 보는 생명관은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거기에 모두 생명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곧 생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말했다. 〈재〉

불미협 2대회장 취임 박찬갑씨



"단순한 친목모임을 탈피, 불교미술인들이 불교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국불교미술인협회(이하 불미협) 2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찬갑씨(조각가)는 불미협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해 분과별모임을 활성화하고 재정의 확보를 위한 후원회 구성, 기독교등 타종교미술인들과의 연대展 등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힌다. 또한 불교미술이 한국미술의 뿌리임을 일반에 재인식시키는 작업과 무지로 인한 일부 잘못된 불사를 바로잡는등 불미협 이미지에 걸맞는 활동을 벌여나가겠다며 "세미나를 열어 한국불교미술을 선도하고 자체수련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포교사로서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불미협 고문에는 권옥연 김영중 전영화씨 부회장 김대열 이화자씨 총무에 이미숙씨가 각각 선임됐다. 〈경〉

"분과모임 활성등 위상정립 주력"

후원회구성 재정 확보…타종교 연대전도

국보급 '지장보살도' 국내 반입

13세기초 제작…김교각스님으로 추정

고려 지장보살도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국보급 불화가 국내에 반입 고려불화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불화는 최근 한국회화 작품으로는 국제경매사상 최고의 가격인 미화 1백68만5천달러(세금수수료 포함 약 13억 4천만원)에 고미술상 K씨등에게 낙찰 국내에 들어온 것. 이 불화는 신라왕족으로 후세에 지장보살로 불리는 김교각스님일 것이 확실시된다는 자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불화에 주존을 크게 그리고 협시를 작게 그리는 일반적인 삼각형 구도를 따르면서도 도명존자 무덕귀왕을 비스듬한 사선위에 대치하고 그 아래 다시 역사선상에 개를 그려넣어 보는 사람의 시각이 자연스럽게 그림전체로 빨려들게 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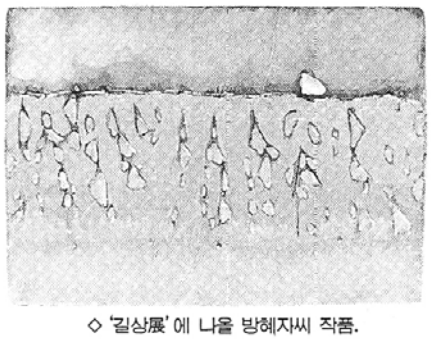
홍윤식교수(동대 박물관장)는 "수형이 높은 승려의 상인 지장보살의 모습이나 도명존자의 흰얼굴 등으로 판단할 때 13세기 초 작품이며 그 이후 그려진 지장보살도의 원도로 보이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곧 문화재 지정신청을 할 계획인 이 불화는 지난달 24일 국제경매시장에서 일본 개인소장가의 의뢰로 경매에 올려졌다.



◇김교각스님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급 고려불화 '지장보살도'.

길상사 불사기금마련 전시회

19~28일 유나화랑



◇ '길상展'에 나올 방혜자씨 작품.

승보종찰 송광사 파리분원 길상사(주지 청학) 불사기금마련 전시회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강남 유나화랑(545-2151)에서 열린다.

개원 3주년을 맞은 길상사의 법당 및 소림헌 개·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이번 '길상전'에는 김창렬 방혜자 박근자 김근중 유선태 오원배 정재규씨 등 21명의 유명화가가 총 29점의 작품으로 참여한다. 특히 파리에서 미술을 전공했거나 파리에서 활동중인 작가들이 선뜻 작품을 기증했고 유나화랑의 대표 유덕화씨도 무상으로 화랑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기금전의 뜻을 더하고 있다.

문화 소식

한나라 황금보물전

중국 전한시대 봉건국가가 운데 하나였던 중산국의 유승과 두관왕후의 황금옥의를 비롯한 유물들을 선보이는 '한나라 황금보물전'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전통공예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02)730-8256

'나의심상' 김성삼展

동양화가 김성삼씨의 네번째 개인전이 인사동 갤러리사비나(7월12일까지), 여의도 서남미술관과 아트샵(7월22일까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02)736-4371~2

새로나온 책…



▲해는 왜 서쪽에서 떠서 꼭 동쪽으로 지나(지안 저)=최근 열반한 고 서경보스님과 법제자인 지안스님과의 문답식 대화를 통해 불자들이 궁금해 하는 일상의 문제를 풀어 답하고, 저자의 수행을 평가하는 선문답을 실었다. 〈무심 7천원〉

▲최상의 지혜(석우 저)=진리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고 아는 것보다는 깨닫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깨달은 진리처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석우스님의 중급교리 반야심경 강의. 〈관음손 5천5백원〉

▲천수경 강의(이지환 저)=불교의 입문경이자 최승의 경인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경전에는 누구든지 큰 자비심을 일으켜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천수경을 외우면 백천만겁에 지은 무거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이 밝아져 드디어는 정각에 이를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관음출판사 6천원〉

◇기사넘쳐 '불심시심' 쉽니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모범업소(오랜전통)
동궁 결혼 연구원
초혼·재혼
저희 업소는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소장 金銀子 합장
문의전화:745-3005

포교당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50평,시설 일체 완비
■연락처:(02)245-0904
■비용:보증금 3000만원 시설 일체 1800만원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척추교정·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처료및교육내용 ▶ 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불교사업 동참하실 분
■불교 교육사업에 뜻이 있는 분
■불교지도자 양성사업 하실 분
■불교 단체 운영하실 분
※교육청 인가
만 대 교 학 대 학 원
등기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931-6075~6(代)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 판매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합천(해인사):대적광전·법상·경상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용작 복전함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성남(법룡사):대웅전 문짝 닫집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용작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서울(학림사):회곡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6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佛事 (불사)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신비의 불탑다라니" 책자를 스님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連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현제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세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파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및관념파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 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펼치도록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주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승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 (0342) 705-3060

황룡사·감은사 대종 찾는다

"남북통일 초석 다지자" 발원…네번째 시도
경주시 문헌수집·예산등 탐사 기초작업중

감은사지앞 대종천과 대종천 입구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황룡사대종과 감은사대종에 대한 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주시(시장 이원식)는 지난 6월말부터 대종발굴을 위해 관련문헌 수집, 발굴업체 물색, 예산안 작성 등의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대종탐사가 거론되기는 이번이 네번째. 80년대초 당시 경주박물관장이던 한병삼씨팀에 의한 탐사, 89년 미군기추락때 문화재관리국에 의한 탐사, 95년 울산거주 박재홍씨팀에 의한 탐사신청 및 불허등 지금까지 3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市 차원에서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주시가 이번 탐사에 적극 나선 것은 지난 4월25일 감은사지 동탑에서 사리장엄구 등 국보급 문화재가 출토된 것이 자극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종이 발견되면 황룡사와 감은사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어느정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주시 문화과장 서용봉씨는 "워낙 발굴지역이 넓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문제는 기업체나 불교종단 등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국유사〉에 의하면 황룡사대종은 높이 312㎝ 두께 27㎝ 무게 149톤의 대종으로 성덕대왕신종의 6배에 달한다. 고려 고종25년(1238년) 몽고침입시 대종을 탐내어 자국으로 반출하려다 대종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배가 대본천(대종천)에 가라앉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감은사대종은 제작년도와 규모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종을 반출하려다 갑자기 일어난 폭풍우에 의해 배가 파손되어 왜군들은 죽고 대종만 문무대왕암 곁에 가라앉아 파도만 치면 바다속에서 종소리가 울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경주=이윤호 기자

각급학교 종교교육 의무화 필요

종교교육학회 경주세미나서 주장
청소년 심성정화…종교편파 '걸림돌'

초·중등 국·공립학교에 종교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는 지난 6월27일과 28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근대 공교육 체제에서 종교교육이 배제된 것은 신교의 자유를 배제하기위한 것과 과학주의 사조가 교육계에 압도하면서 일반화 됐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선영교수(동국대 교육학과)는 "종교가 인간 개개인에게 인생관 내지 세계관을 확립토록하고 인간사 문제들에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며 "이렇게 볼때 정신적 인격적으로 미숙한 청소년기에 진정한 인간교육을 위해서는 종교교육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교수는 "종교교육이 특정종교를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에서 배척하는 경향은 재고해야 한다"며 "현대와 같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서 종교교육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표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립학교 종교교육이 금지되고 있는 '미국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을 통해 "미국은 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학교교육 이념과의 논쟁이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의 이념은 종교적 교육과 대치된다는 원칙하에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교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교수는 "학교교육에서 종교의 중립성등 종교교육이 분리되기까지 오랜과정이 필요했음에도 종교와 교육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원〉

불교유아교육 방송모형 제시

동국대교육대학원 박경주씨 석사논문
기존 TV프로 분석 불교가치관 추가



현대사회 영상매체의 제1주자라 할 수 있는 TV를 이용, 유아의 전인교육과 심성 및 정신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불교유아교육 프로그램모형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경주씨(동국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는 '영상매체를 통한 불교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모형개발 기초연구'라는 석사논문을 통해 인지적 발달단계에 있어 결정적 시기에 놓인 유아들에게 효율적인 학습교구인 TV의 불교적 활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논문 '영상매체…'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TV유아교육 프로그램인 KBS-1TV 'TV유치원 하나 둘 셋' MBC-TV '뽀뽀뽀' EBS-TV '딩동댕 유치원' 세편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비교분석, 이를 근거로 불교TV의 불교유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방영시의 활용가능한 기초모형을 제시했다. 박씨는 영상매체를 통해 유아들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손쉽게 접근하기위한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포맷을 '우리는 룸비니 친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했다. 이를 통해 실생활과 자연스레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종교관을 키우게 하고, 유아가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

천태불교문화연구원 11월 개원

천태학 연구·포교·출판등 역점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 6월27일 서울 앰베서더호텔에서 천태학 연구 및 포교방법 연구를 담당할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4면〉

21명으로 구성된 발기인들은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을 오는 11월초에 개원키로 하고 천태문화가 현대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연구원 운영방침을 정했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천태학 및 불교포교방법의 연구와 불교문화, 출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은 △자문위원 정산스님(감사원장) 덕산스님(종회의장) 박형철 참의원장 김영태교수(동국대) △연구위원 이영자, 권기종, 서윤길, 정병조, 이봉춘 동국대교수 채상식교수(부산대) 김상현교수(교원대) 권탄준(불교문화연구원) 허흥식(정신문화연구원)씨 도원(총무부장) 덕수(교무부장) 국성(교육부장) 도재(재무부장) 문덕(사회부장) 춘광(규정부장)스님과 간사에 지창규(동국대 강사)씨가 위촉됐다.



태고종 초대방장 추대

태고종 총무원(원장 혜초)은 지난 4일 오후2시 순천 선암사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고총림 초대방장 추대식을 봉행했다. 초대 태고총림 방장 덕암스님은 개당법어에서 "선풍을 진작하고 교세를 확장하는등 육신을 바쳐 선암사 복원불사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선암사=김원우 기자〉

사찰관리 프로그램 '이뭐꼬1' 출시
윈도95 이용…마우스 입력기능 단순화

정보기획 서명이 사찰관리 프로그램 '이뭐꼬1' 발매를 시작했다. 이뭐꼬는 윈도 95시스템을 이용 사용자가 컴퓨터에 익숙치 않더라도 마우스를 이용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부분의 기능을 단순화 최소화시켰다.

신도의 개인현황은 물론 가족사항, 법회참석률, 불사참여도등도 알 수 있으며 이같은 개인관리를 통한 전체 신도의 평균과 현황을 알 수 있게 프로그램돼 있다. 또 월별, 년도별 기록도 찾아볼 수 있고, 와일드 카드 검색기능이 있어 생일, 성별, 법회별로 원하는 자료통계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이뭐꼬의 장점.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찰은 그 관리와 사업계획수립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사찰관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도스용으로 제작돼 최다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아난타'를 비롯, 역시 도스체제인 '붓다' '금강'과 도스체제로 발매됐다가 최근 윈도95체제로 확장 재발매된 '보리수' 등이 있다. 〈은〉



◇캘리포니아 북쪽 스튜어트 포인트 인근 야산에 건립된 '오디얀'의 황금빛 본당.

캘리포니아에 사찰건립 '붐'
신도 80만명 넘어…티벳불교 관심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불교사찰이 건립되는 등 미국 곳곳에 절이 들어서고 있으며 신도도 날로 늘어나 현재 80만명이 넘는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명상과 선문답을 강조하는 일본의 젠(禪)불교에서 신비주의 색채가 강한 티벳불교 쪽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에는 '오디얀'이란 티벳불교사원이 세워졌다.

닝마센터의 후원을 받아 조성된 '오디얀'은 약 32미터 높이의 황금빛 본당과 수십개의 승방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인 재가불자의 전문 수행처로 제공되고 있다.

방송가 소식

btn '고려대장경' '출가…' 등 10편
홍콩 국제영상물 전시장 출품

불교TV가 오는 12월 5일~8일 홍콩서 열리는 국제 영상물 전시장 MIPASIA FILM MARKET 에 '고려대장경 1·2편' '한국의 명찰 5편' '영상포엠 내원사' '통도사' '예불' '출가, 새로운 탄생' 등 총 10편을 출품한다.

MIPASIA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물(다큐멘터리 영화, 만화) 전시 및 세미나 박람회. 이번에 처음으로 출품하는 불교TV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불교TV를 세계 영상시장에 널리 홍보하고 한국의 불교프로그램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TV는 참가국과의 정보교환과 유대관계 모색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외국사와의 합작의 발판도 마련하게 된다.

불교TV 현재 한국종합유선방송협의회와 공동부스설치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곧 출품작에 대한 영문자막, 더빙, 브로셔 제작도 착수할 예정이다.



◇혜남스님

혜남스님 진행맡아
'자비의 전화' 월·화

BBS의 신행상담 프로그램 자비의 전화(PD 전승환)는 지난 8일부터 혜남스님(불전국역연구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전 진행자 혜담스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혜남스님은 매주 월, 화요일 오전 10시5분부터 55분까지 불자들을 찾아간다.

中 원명법사 일대기
'불문춘추' 19일부터

불교TV가 드라마 '불문춘추'(매주 금 12시35분)를 오는 19일부터 방영한다.

드라마 '원효대사'의 후속으로 방송되는 '불문춘추'는 120여년전의 중국불교협회의 제1대 회장을 역임한 중국고승 원영법사의 일대기를 다룬 것.

중국 조정의 관료화와 대일정책에 반대하다 수많은 고초를 겪은 후에 불문에 귀의한 원영법사가 걸어온 불도의 길을 총 6부작에 걸쳐 방송하게 된다.

떠나는 종무원들

목탁소리

김 재 경 〈취재2부 기자〉

열악한 처우아래 신심 하나로 버텨왔던 재가종무원들이 불교를 아주 떠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종단도 전산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등 눈부시게 첨단화되고 있다. 정작 본말사 등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주먹구구식 인력관리와 낮은 처우수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개선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7월호 월간 〈대중불교〉가 전국 주요 본사의 종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 본말사의 급여수준은 민주노총에서 95년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곳들이 허다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곳도 드물었다. 또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금 지급 등 가장 기본적인 복지혜택마저 외면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근속년수별 종무원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3년 미만으로 근속한 종무원 비율이 전체의 38%에 달하는 데 비해 10년 이상의 종무원들은 10%를 겨우 넘을 뿐이다. 즉 신심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3년 정도가 지나면 대다수가 절과 불교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떠나는 종무원들 중 많은 수가 타종교로 빠져든다는 데 있다.

스님의 대리인이자 사찰의 첫번째 신도인 종무원들이 불교를 원망하며 타종교인이 되는 현실을 과연 누가 조장하고 있는 걸까. 종무원들도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생활인이다. 사찰업무에 종사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신심과 봉사의식 때문이기 보다는 '신심도 있지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57.14%), '전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21%) 등의 순으로 대답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불교계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구호삼아 내 이웃의 고통을 나눠가지자는 열변을 토하면서도 정작 울타리안 가장 가까운 신도들이 처한 고통에는 눈감아 버리는 아이러니를 끝내야 한다.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전국지사·지국 보급소 모집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법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일할 지사, 지국 보급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1. 자 격 — 주소지에 3년 이상 거주하신분, 불심이 돈독하여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 자필 이력서 1통, 주민등록 등본 2통
3. 대상지역 — 전국 각 도·시·군·구 ※ 광주, 부산, 대구, 목포, 공주, 사천, 제주, 강릉, 부천지역 제외
4. 모집기간 — 96년 7월1일 ~ 7월 31일
5. 선 발 — 서류전형후 개별 통보
6. 보 낼 곳 —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8881, 팩스 : 737-0697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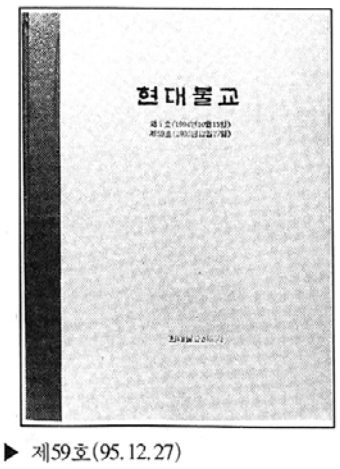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 **가 격** : 50,000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현불뉴스

일각스님 사리 친견

조계총림 장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회광 일각스님 다비식 이후 쇄신사리 33과 치아사리 27과를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송광사는 일각스님의 사리를 삼일암 미소실에서 일반에 공개, 친견토록 했다. 일각스님의 49재는 8월10일 송광사에서 봉행된다.

파라미타 부산간담회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총재 성타)는 지난 2일 부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의실에서 부산지부 창립을 위한 지도자 간담회를 가졌다.

원각사비 보호각 설치

탑골공원 안 원각사비(보물 제3호)에 보호각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원각사비를 보호하기 위해 사각지붕을 한 17평 규모의 보호각을 건립키로 하고 내년 3월 공사에 들어가 8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까지 문화재 및 불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호각 설계를 마무리하고 모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에 착공한다.

자원봉사센터 발대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와 사회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오는 13일 자원봉사센터 개원식을 갖는다.

새회장에 지도스님

개원 3주년이 되는 대구자비의전화가 지난 6월28일 대구 삼성금융플라자 5층 다목적홀에서 제2대 회장 취임식 및 기념강연회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신임회장에는 지도스님(동화사 포교국장)이 취임했으며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대불련 부산동문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동문회가 6월 29일 부산 역앞 뷔페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옥치탑동문(부산대 졸)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정관승인과 임원단 선출을 마무리했다.

'불교정화사' 정리 움직임

태고종 '백서'·선우도량 '자료집' 발간 추진

비구-대처분규로 얼룩진 불교정화를 정점으로한 한국 현대불교사를 객관적 자료제시를 통해 정리하고 미래불교의 모습을 그리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혜초)이 조·태분규의 실상을 자료로 정리할 백서를 준비하고있고 선우도량(상임대표 혜담스님)이 불교정화운동사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민도광스님이 정화관련 자료집 출간을 서두르고 있어 묻혀있던 한국불교의 정화사가 정리되면서 재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 정화는 54년 이승만대통령의 유시에 따라 비구-대처간의 분규로 나타난 현대불교사의 분수령.

태고종은 지난 1일 종무회의에서 백서발간추진위원회를 오는 10일 발족키로 하고 인공스님(총무원부원장)을 위원장, 법현스님(총무부장)을 간사장으로 하여 각부장과 기관장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분규로 인한 물적 인적 번적피해와 각 신문 문서 진정서 결의사항 자료및 의견을 수집하고 분규관련스님의 증언과 방대한 분량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분석, 집필에 들어가 오는 10월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백서는 조·태 분규발발원인에 대해 불교계 내부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분규관련 원로스님들의 증언과 재가불자 정부기관의 관계자 의견을 채록했다. 또 종단창고에 보관해온 분류번호 1번 전등사·봉선사 재산대장에서부터 4백55번 불교조계종 종헌까지의 통합종단당시 조계종 문서와 미국 CIA에 보관중인 한국불교 자료를 수록한다는 것. 특히 분규와 관련 미국 CIA 자료에는 조선시대 통불교에서 일제시대 불교, 분규과정의 불교자료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조·태 분규의 관계가 규명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선우도량도 정화운동 당시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해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였거나 참가한 60여명의 스님·재가자들의 증언과 총독부의 관보였던 매일신보와 친일계 신문들의 기사자료를 토대로 증언채록집인 〈불교정화운동사자료집〉을 내년 7월에,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자료집2〉를 오는 11월경 각각 내놓을 계획이다.

원로스님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경험과 상황을 진솔한 이야기체로 담아내게 될 〈불교정화운동자료집〉은 현재 조계종 태고종의 대담인사로 석주 범룡 월산 능가 관응 서옹 벽암 서봉 덕암 보성 운제스님과 정태혁 동방불교대학장을 비롯한 6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으며 실무적인 증언채록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우도량은 일제시대 총독부의 불교재산 처분에 관한 기록과 재판기록을 통해 토지의 소유변천과정을 이해토록 하는 자료집을 올해말부터 정리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수집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불교사 연구의 필수이며 불교정화운동사를 연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선불교계의 항일운동〉자료집 발간과 함께 세미나도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불교정화당시 조계종 총무원에서 소임을 맡고 있었던 대구의 민도광스님도 최근 보관해온 기록과 사진을 모아 자료집 출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우 기자〉



"초임주지 첫 교육"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3일 봉선사에서 초임주지를 대상으로 기초종무행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종단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교육에는 84명의 초임주지들이 참석, 재정관리, 포교와 신도관리 등 종무행정 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봉선사=이준엽 기자〉

가정신행·기원의례 생활화하자

부산불교신도회 '불자가례' 세미나

합장·공양기도 '포교사부터 실천'

집안의 길흉사에서 인사법에 이르기까지 불자가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장이 지난 2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주최,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 주관으로 개최됐다.

포교활성화를 위한 기획시리즈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 '불자가례의 현실과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기인씨는 "불교의 정법과 가례가 시대적 상황과 사회구조로 말미암아 기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일반불자들이 합장 인사하기, 공양 기도하기 등 근본적인 생활습관을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포교사가 먼저 실천행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대원성행씨(보현봉사 회장)는 '가정신행, 기원의례의 생활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대개의 관혼상제가 불교식으로 행해지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에 의한 강력한 배불정책으로 전통적인 불교가례가 산중사찰로 밀려나게 됐다"며 "불자들의 소극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심이 불교 생활화의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도필선 기자

불교교양대 학제 통일안 제시

조계종, 교과과정도…포교사 자격 강화

조계종 포교원산하에 있는 불교(교양)대학의 학제와 커리큘럼이 통일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4일~5일 서울 북악파크호텔에서 종단등록 불교(교양)대학 대표자회의를 갖고 불교대학 학사일정 통일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통일화방안에 따르면 기초과목을 신도입문서, 불교학개론, 종헌 종법특강, 습의 및 사찰 수련회중 3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신행, 불교사, 경전, 포교실무분야 등의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학제통일방안으로는 포교사 응시자격을 97년부터 학제 6개월이상인 대학으로 한정하고 2000년까지 2년제 이상의 대학으로 확대개편,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포교사를 배출, 불교포교의 질적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강의시간 및 일정, 수강신청 및 수료학점, 교수진 선정, 평가기준 등의 세부적인 불교대학 학사일정 통일화방안이 논의됐다.

다보수련원 20일 개원

진흥원 괴산에…故 장경호거사 흉상제막도

교계의 첫 종합수련원이 되는 다보수련원이 준공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오는 20일 오전9시부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현지에서 준공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준공법회에는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과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이사장 등 6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며, 준공법회에 이어 불교진흥원 설립자 고 장경호거사의 흉상제막식도 봉행한다.

다보수련원은 지난 93년 공사를 시작해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웅전과 지하1, 지상2층 연건평 267평 규모의 수련관을 완성했다. 또 수련원과 국립공원 화양동계곡으로 이어지는 산책코스 및 등산로를 개발해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다보수련원은 이후 불교계 신행단체의 수련 뿐만아니라 어린이 청소년과 가족단위의 수련에도 수련원을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다보수련원은 개원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21일까지 신행단체 지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에는 이기영박사(한북불교연구원 이사장) 권기종(동국대교수) 김정빈씨(작가)의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주제의 특별강연도 있다.

청소년지도자 모임 선재연구회 13일 창립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불교문화활동 보급을 위한 청소년 전문지도자모임이 결성된다.

선재마을 부설 선재연구모임(회장 법명스님)은 오는 13일 불교방송국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현직 불교청소년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발족되는 선재연구모임은 8월 12일부터 3일간에 걸쳐 경주일대에서 열리는 전래놀이캠프를 시작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선재연구모임은 월간 '선재' 발간, PC통신 상담실 운영, 청소년관련서적 발간, 어린이 청소년 불교학교 행사지원, 청소년지도자양성 등을 주요활동으로 할 예정이다.

납골당·장례식장 활성 '가시화'

복지부 '장묘제 개선안' 발표…종교시설은 신고제로

6월28일 복지부의 '장묘제도 개선시안'이 발표됨에 따라 교계가 운영하는 장례예식장 및 납골당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시설유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복지부의 '장묘제도 개선시안'에 따르면 빠르면 97년 상반기부터 현행 공·사설 집단묘지는 한기당 9평이내에서 3평 이내로, 개인묘지는 24평이내에서 6평 이내로 묘지허용면적을 각각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집단묘지에 대해 '시한부매장제'를 도입, 묘지 매장기간을 30~6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15년씩 연장키로 했으며 이후에는 납골당에 안치토록 했다. 이에따른 보강책으로 복지부는 공설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설 법인묘지 및 종교시설 등에 설치할 경우 신고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시 국·공유지 무상사용 및 시설비를 보조한다는 계획이어서 교계의 장묘시설 유치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이밖에 '종합 장례서비스제도'를 도입해 전화 한통화로 빈소설치에서 운구, 묘지 알선 및 봉분조성까지 모든 장례절차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설계변경등 논의

승가대 김포이전추진위

복지부의 이번 시안은 현재 교계에서 납골당 및 장묘시설을 운영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선원, 고운사, 영각사, 백양사 등의 장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지하) 1차 회의가 지난 4일 중앙승가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전추진위원들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금정사 김포학사에 대한 설계도를 기존 9백60명 기준에서 4백80명으로 변경 설계하기로 했다. 또 현대가람 건축양식으로 짓되 교직자 스님들의 기숙사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했다.

한편 이전추진위는 종단차원의 자금지원 촉구 외에도 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해 전 종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마음 깨닫고난 후의 이익

깨닫고 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는데 깨닫는 이 더 높은 지위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재물을 늘려주지도 않습니다. 깨닫는 것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 으로써 있는 그대로를 여실히 보고 일체 망념에 둥 아니게 응하고 화해줄 수 있는 그것뿐입니다. 본래의 밝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항마은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한국의 명찰」에 계신 스무 분의 부처님들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눈에 잡힐 듯한 그모습 그대로 「한국의 명찰 20선」에 담았습니다

월정사, 쌍계사, 선운사, 부석사.....
이름만 들어도 정취가 넘치는 한국의 유명 사찰들을
스무편의 비디오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승대덕의 훌륭한 법문이
살아숨쉬는 「한국의 명찰」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은은한 목탁이 될 것입니다.

불교TV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대하 다큐멘타리-
「한국의 명찰」20선에서 한국 전통 불교문화의
숨결을 느껴 보십시오.

「한국의 명찰」 20선을 세트로 구입하시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전국의 유명 사찰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 날로 심각해지는 고통난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유명사찰을 자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해 가정에서도 佛心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명찰」엔 우리의 문화재를 제대로 알고 감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어 각급 학교의 VIDEO학습교재로 최적의 가치가 있습니다
- 법보시용으로 여러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증하셔도 좋습니다

구입 방법 : 100% 전화 주문
구입문의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Tel (02)3272-0781~5/706-3502~5



●20set / ₩330,000원 (신용카드 구입시 할부 가능)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illegible] 주부아르바이트 모집
-전화 상담직
-연령 30~40대(서울시내 거주 하시는 분)